

발 간 등 록 번 호

71-3830129-000001-10

제2의
A+ 안양 부흥

제11집

안양시립도서관

독서정보 자료집

2016



안양시립도서관

발 간 등 록 번 호

71-3830129-000001-10

제2의
A+ 안양 부흥

제11집

안양시립도서관

독서정보 자료집

2016



안양시립도서관



● 발 간 사	
▪ 안양시장	3
● 독서정보서비스 운영현황	5
● 독서정보서비스	
▪ 사서추천도서 서비스	15
▪ 2016년 도서 대출 베스트	97
● 국민 독서실태	107
● 독서 명언 모음	117

여 백

발 간 사



차가운 기운을 가득 담은 겨울이 오니 우리의 따뜻한 마음도 한결 도드라집니다. 당찬 마음으로 보냈던 지난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희망으로 시작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활동은 단연 ‘독서’일 것입니다.

독서란 단순한 문자 판독을 넘어 책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의 간접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로서 책을 통해 인간과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정신활동입니다.

그러나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9.1권으로 월 한 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 간의 소통은 많아졌지만 면대면의 진실한 소통은 오히려 줄어든 게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이러한 문제를 일찍이 인지하고 시민들의 독서 증진과 소통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민들이 독서정보를 편리하고 알기 쉽도록 사서추천도서, 도서대출베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고 책이음, 상호대차, 두루두루, 내생애첫도서관 등 도서대출 서비스를 통해 참 지식 확산과 풍부한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독서정보소식지(11집)」는 지난 한 해 동안 안양시 10개 도서관 사서직원들이 작성한 독서정보를 한 데 모은 매우 의미 있는 책자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만큼 널리 활용되어 시민들이 양질의 도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안양의 독서문화 진흥과 인문도시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책자 발간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에는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고 마음의 양식과 삶의 지혜를 한가득 얻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안양시장 이 필 운

여 백

독서정보서비스 운영현황

여 백

독서정보서비스 운영현황

■ 추진과정

- 독서정보서비스는 21C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한해 약 4만여 종 1억만 부의 도서가 출판되는 등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로,
- 안양시립도서관(석수·평촌·만안·호계·박달·비산·어린이·별말·관양·삼덕)에서는 빠르고 편리하게 도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독서정보서비스를 2005년 4월에 선보인 후 효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추진내용

- 사서들의 「사서 추천 도서」 서비스
 - ▶ 사서들이 흥미있게 접한 신간도서 위주의 일반 및 어린이도서를 추천하여 새로운 도서 정보를 알려주고, 다량의 출판도서 속에서 신속한 도서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서 대출 베스트」 제공서비스
 - ▶ 안양시 10개 도서관의 도서대출 베스트 순위를 일반도서와 어린이도서로 나누어 1위부터 5위까지 분석, 제공하여 이용자의 대출경향을 알려줌과 동시에 흥미위주의 독서습관을 지양하고 양서에 대한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국회도서관 원문DB」 열람서비스

- ▶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디지털자료의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국회도서관에 달리 시간을 내서 가지 않아도 원문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 운영장소 : 9개 도서관 디지털자료실(어린이도서관 제외)
- ▶ 이용시간 : 평일 - 9:00 ~ 18:00, 주말 - 9:00 ~ 17:00(2시간 단위 이용가능)

○ 「인문학 강의 온라인서비스」

- ▶ 우리나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인문학에 접근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줌으로써 인문 학습을 통한 인문학적 상상력 증대 및 인문정신 함양에 기여함.
- ▶ 이용방법 : 안양시립도서관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이용
※ 이용대상 : 안양시 10개 도서관 대출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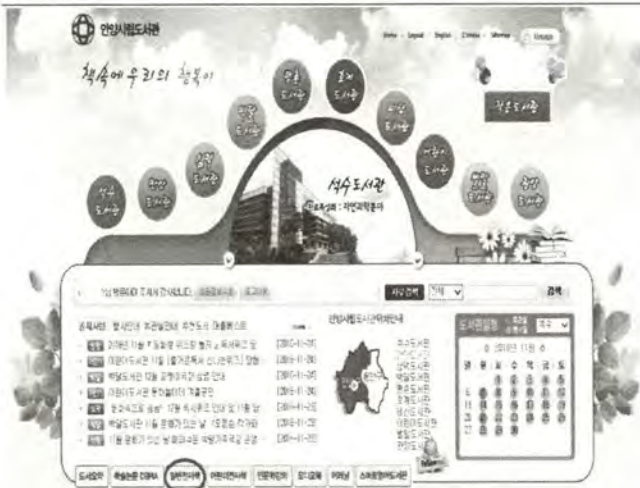
「인문학강의」 클릭



「인문학강의」 메인화면

○ 전자책 「E-Book」 서비스

- ▶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전자책(E-Book)을 대출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 이용방법 : 1인 5권, 7일 대출가능(1회 연장 가능)
※ 이용대상 : 안양시 10개 도서관 대출회원



「일반전자책」 클릭



「일반전자책」 메인화면



「어린이전자책」 클릭



「어린이전자책」 메인화면

○ 「오디오북」 서비스

- ▶ 여러 분야의 베스트셀러 서적, 강연 등을 내용에 따라 그대로 읽어주거나 각색하여 녹음한 디지털 오디오 콘텐츠로 PC, MP3, 모바일 등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서비스
- ▶ 이용방법 : PC, MP3, 모바일 등에 다운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이용

※ 이용대상 : 안양시 10개 도서관 대출회원



「오디오북」 클릭



「오디오북」 메인화면

○ 「온라인 강좌학습」 서비스

- ▶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국어, 교양, IT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강좌
- ▶ 이용방법 :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이용
※안양시 10개 도서관 대출회원



「온라인 강좌학습」 클릭



「온라인 강좌학습」 메인화면

○ 「도서요약」 서비스

- ▶ 신간도서의 전체내용 중 핵심내용을 5% 내외로 간추린 도서요약본을 제공하여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차게 전달하는 한편, 독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양질의 도서 선택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
- ▶ 이용방법 :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이용
※안양시 10개 도서관 대출회원



「도서요약」 클릭



「도서요약」 메인화면

○ 「학술논문 DBpia」 서비스

- ▶ 국내 우수 간행물의 창간호에서 최근호까지 원문과 서지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전문 전자저널서비스
- ▶ 이용방법 :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이용
※안양시 10개 도서관 대출회원



「학술논문 DBpia」 클릭



「학술논문 DBpia」 메인화면

○ 「안양시립도서관 모바일 웹」 서비스

1.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www.anyanglib.or.kr/mobile>] 입력 / 로그인
2. 도서검색, 도서관안내, 좌석현황검색, 문화행사안내, 모바일회원증 등
※ 이용대상 : 안양시립도서관 10개 도서관 대출회원



▶ 전자책(e-Book)

1. 어플설치 :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안양시 전자도서관」 어플 다운
※ 최초 1회 PC버전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대출, 열람 후 이용 가능
2. 로그인 : 아이디 / 이름으로 로그인
3. 도서검색 / 대출 (반납, 예약 가능)

▶ 오디오북(audio-Book)

1. 사용자등록 : 도서관홈페이지 > 전자도서관 > 오디오북 > 사용자등록
2. 어플 설치 :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오디오도서관 어플 다운
3. 도서관 검색 : 안양시립도서관 / 로그인
4. 도서대출 / 바로 감상(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

			
사용자등록	어플 설치	도서관 검색 / 로그인	바로 감상하거나 다운

▶ 학술논문서비스

1. 안양시립도서관 모바일 웹 로그인 > 전자도서관 > 학술논문검색
2. 논문검색 / 원문이용 : 원문 PDF 파일 다운, 저장한 원문 열람 가능

			
전자도서관	학술논문검색	논문검색	원문다운

▶ 도서요약전자도서관

1. 안양시립도서관 모바일 웹 로그인 > 전자도서관 > 도서요약전자도서관
2. 도서요약본 검색/열람 : 도서요약본 300편 열람(매달 30종씩 업데이트)

전자도서관	도서요약전자도서관	도서요약본 검색

○ 스마트영어도서관

- ▶ 어린이가 수준에 맞는 영어 도서를 선택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 1단계 : 영어읽기수준 진단 온라인 테스트
- 2단계 : 레벨에 맞는 책 읽기
- 3단계 : 온라인 독서퀴즈를 통해 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가

- ▶ 이용방법 : 석수도서관홈페이지 → 도서관서비스 → 문화행사 신청 →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록 →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이용

※안양시 10개 도서관 대출회원

「스마트영어도서관」 클릭	「스마트영어도서관」 메인화면

사서추천도서

사서추천도서란?

사서들이 읽고 추천하는 「사서추천도서」는 안양시립도서관 사서들이 매월 선정된 분야와 관련된 도서를 읽고 A4 1매 분량의 사서추천도서를 작성하여 바쁜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익한 독서정보 제공 및 도서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

인문·사회·과학·어문학·어린이 5개 분야
발간 1년 이내 신간도서제공

여 백

사서추천도서 목록

월	도 서 명	사서 추천
2016년 1월	■ 엄마의 감정수업	석수도서관 이철석
	■ 괴짜 과학자들의 엉뚱한 실험실	석수도서관 오세은
	■ 언제 들어도 좋은 말	만안도서관 조윤주
	■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박달도서관 김현진
	■ 스마트한 월급관리의 법칙	평촌도서관 진보미
	■ 생각의 망치	비산도서관 문지영
2016년 2월	■ 서울 사는 나무	석수도서관 김유진
	■ 브랜드 3.0	평촌도서관 방은선
	■ 맘마미아 월급 재테크 실천법	평촌도서관 박지현
	■ 시를 읽은 그대에게	호계도서관 강석림
	■ 내 엄마	어린이도서관 김성아
	■ 죽도록 일만 하다 갈 거야?	벌말도서관 이해준
2016년 3월	■ 만물과학	석수도서관 홍만희
	■ 세상의 모든 공식	석수도서관 안영주
	■ 청춘기담	만안도서관 최미송
	■ 걱정 지우개	박달도서관 배성현
	■ 출가분한 삶	평촌도서관 박하영
	■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52가지	비산도서관 김수현
2016년 4월	■ 과학자의 연애	석수도서관 김태영
	■ 시간 부자가 된 키라	평촌도서관 이유림
	■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평촌도서관 진보미
	■ 계란찜 아빠, 꼬막 남편	호계도서관 황신혜
	■ 밤밤이와 안녕할 시간	어린이도서관 김지혜
	■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평촌도서관 윤이령
2016년 5월	■ 뼈가 들려준 이야기	석수도서관 김은아
	■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만안도서관 김란아
	■ 벽 속의 아이들	박달도서관 유민정
	■ 부러지지 않는 마음	벌말도서관 신아영
2016년 6월	■ 우주의 여행자	석수도서관 김종혁
	■ 우리는 부동산으로 월급받는다	평촌도서관 김보근
	■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	평촌도서관 박지현
	■ 이토록 환해서 그리운	호계도서관 허지희
	■ (법륜 스님의) 행복	벌말도서관 김윤하
	■ 친절환 돼지 씨	어린이도서관 최윤숙

사서추천도서 목록

월	도 서 명	사서 추천
2016년 7월	■ 동물들의 소송	석수도서관 이철석
	■ 수학적 사고법	석수도서관 오세은
	■ 종의 기원	만안도서관 조윤주
	■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 대화	박달도서관 김현진
	■ 공부 중독	평촌도서관 박하영
	■ 사운드 맵	비산도서관 문지영
2016년 8월	■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뇌	석수도서관 김유진
	■ 대한민국 미생들에게 주는 7가지 선물	평촌도서관 이유림
	■ 30분 경제학	평촌도서관 진보미
	■ 금요일에 읽는 가족의 시	호계도서관 강석림
	■ 마음 청소	벌말도서관 이해준
2016년 9월	■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개념	석수도서관 홍민희
	■ 사소한 것들의 과학	석수도서관 안영주
	■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평촌도서관 윤이령
	■ 플레이 볼	만안도서관 최미송
	■ 산도 인생도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산도서관 김수현
	■ 세익스피어는 어디에?	박달도서관 이해동
2016년 10월	■ 틀리지 않는 법	석수도서관 김태영
	■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관양도서관 방은선
	■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호계도서관 황신혜
	■ 꿈이 없다고 말하는 그대에게	벌말도서관 신아영
	■ 누가 뭐래도 난 나야!	어린이도서관 김지혜
2016년 11월	■ 김상욱의 과학공부	석수도서관 유민정
	■ 사소한 것들로부터의 위로	석수도서관 김은아
	■ 즐겁게 살자, 고민하지 말고	만안도서관 조윤주
	■ 리더의 아침수업	관양도서관 김윤하
	■ 내 손끝 작은 구멍	박달도서관 배성현
2016년 12월	■ 생명의 기억	석수도서관 김종혁
	■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박달도서관 이해동
	■ 인생 견문록	호계도서관 허지희
	■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벌말도서관 김보근
	■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	어린이도서관 최윤숙

사서추천도서



도서목록

- ✎ 엄마의 감정수업
 - ✎ 괴짜 과학자들의 엉뚱한 실험실
 - ✎ 언제 들어도 좋은 말
 - ✎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 ✎ 스마트한 월급관리의 법칙
 - ✎ 생각의 망치
-

엄마의 감정수업



나오미 스타들런 지음 / 유아이북스 / 2015 ▶ 598.1 스883엄



석수도서관 이 절 석

「엄마의 감정수업」은 엄마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가 운영하는 엄마들을 위한 토론 모임에서 나온 많은 엄마들의 사례를 통해 엄마와 아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연구를 토대로 출간된 기존의 책들은 획일적인 연구 결과에 치중하느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저자는 이러한 기존 육아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엄마들의 실제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육아 문제에 얽힌 여러 심리 문제를 풀어내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육아에 좌절감을 느끼는 엄마, 애착육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스트레스를 받는 엄마, 모성애를 지나치게 강요받아 정작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엄마 등 주위에서 많은 엄마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

또한 아이를 위해 강박적으로 행복해야 한다고 느끼는 등 자기표현을 어려워하는 엄마들의 심리적 고민도 담고 있다. 엄마이기 이전에 한 여자로서 엄마가 되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일들로 인해 가족 관계나 사회에서 느끼는 우울함도 언급한다. 엄마가 양육을 도맡아 하던 예전과 달리 엄마의 직장 생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현재 상황 역시 반영하고 있다.

동등한 사람 사이에서 '순서 정하기'는 대체로 상호 간의 동의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아기와는 이야기가 다르다. 엄마와 아기가 둘 다 같은 순간에 뭔가가 필요할 때, 누군가 자신의 '순서'를 누리고 있는 동안, 팀의 이익을 위해 누가 뒤로 물러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엄마여야 한다. (188쪽)

Contents

※ 키워드 : 엄마, 감정, 수업

- 1. 아기를 위한 마음의 공간
- 2. 아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엄마들
- 3. 누구나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다
- 4. 신체 접촉의 힘
- 5. 프로이트의 그림자
- 6. 아기를 이해하기
- 7. 촛불이 스러질 때
- 8. 내가 아이의 발달을 막고 있는 걸까

괴짜 과학자들의 엉뚱한 실험실

피에르 바르텔레미 지음 / 이숲 / 2015 ▶ 404 바297괴



석수도서관

오 세 은

‘과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친숙하지만 어려운,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과학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져 외면하기만 했다면, 이 책은 조금 더 쉬운 관점으로 과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남자는 여자 때문에 바보가 되는가?’, ‘천국과 지옥 중에서 어디가 더 뜨거울까?’, ‘마리 앙투아네트 증후군을 찾아서’ 등 제목만 보아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설명한다. 엉뚱한 호기심의 뒤편에는 과학의 원리가 흐르고 있으며, 이러한 호기심의 열정으로 자신을 실험대상자로 만드는 괴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학이 친숙함으로 다가올 것이다.

생물학자들은 진화과정에서 이성이 보내는 신호를 지나치게 성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수컷에게서 편향되게 발달했다고 말한다. 수컷들이 교미 기회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게끔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매 순간 사냥 본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르고, 이 대가는 인지검사 점수가 하락하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남성은 상대 여성이 짝짓기 상대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부단히 가능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는지를 살피느라 인지능력을 소모하여 정신력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22쪽)

우리는 생활하면서 한번쯤은 당연히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엉뚱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모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모든 것은 과학의 원리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uthor

※ 키워드 : 과학, 실험, 괴짜

■ 피에르 바르텔레미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프랑스 과학 분야 대표 월간지 ‘과학과 생명’ 편집장으로 일하다가 현재 ‘르몽드’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 기사와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프랑스어권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블로그 ‘과학 전해주는 사람’을 운영하고 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이석원 지음 / 그책 / 2015 ▶ 814.7 이541ㅇ



만안도서관 조 윤 주

이 책은 그룹 '언니네 이발관'의 보컬이자 『보통의 존재』, 『실내인간』으로 작가로서의 이력을 쌓고 있는 이석원의 두 번째 산문집이다. 『보통의 존재』가 작가 개인이 평상시 느꼈던 것들을 나열해 놓았다면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은 『보통의 존재』를 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한 소설 같은 산문집이라 할 수 있다.

이혼 경험이 있고 나이는 어느새 마흔을 넘겨 세상에 유달리 새로울 것이 없는 '나'는 글쓰기로 생계를 그럭저럭 꾸려가고 있다. 그런 '나'에게 여의사와의 소개팅이 들어온다. 여의사를 만나고 난 뒤 '나'의 감정 변화를 잘 묘사한 책이다.

주인공 '나'를 통해서 사랑을 시작하는 모두가 갖는 보통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준다. 나이 마흔을 넘겨도, 사랑에 크고 작은 실패를 겪었음에도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면 마치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소년의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은 마치 20대의 풋풋한 만남이 저절로 떠오르고 신기하게도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흔히 느낄 수 있는 보통의 감정이기에 성별을 떠나서 공감할 수 있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낯선 것을 접했을 때 미숙한 나를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저절로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만나 평소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 시키거나 부족한 면을 느낌으로써 성숙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기울어진 생활을 수평으로 만들며 또 다른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으며 다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여한 없이 원망하다가 결국엔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
내가 받은 것보다 준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이 해의 끝을 보내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317쪽)

Author

※ 키워드 : 산문집, 일상, 언니네 이발관

■ 이석원

1994년 결성된 밴드 '언니네 이발관' 보컬로 5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하였다. 담담하게 써내려간 가사와 멜로디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밴드 활동뿐만 아니라 산문집 『보통의 존재』, 소설 『실내인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류은숙 지음 / 양철복 / 2015 ▶ 아342.1 반751양3



박달도서관

김 현 진

이 책은 다르게 생각하고, 거꾸로 바라보고,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반쪽을 채우는 어린이 세상 수업’의 세 번째 책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했던 인권운동의 원고를 보고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는 그린이의 소개가 눈에 띈다.

독재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연주를 하지 않았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로 연주자 파블로 카잘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내가 다른 사람, 나처럼 기적이고 경이로움인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으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가 모여 세상을 만들다’ 라고.

*“우리는 약속해요. 우리들의 다름에 대해 열리고 신중한 태도를 가질 것어요.
우리의 배경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공통된 현실을 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곳이 되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뭉쳤어요.
여러분은 우리 아동을 ‘미래’ 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또한 ‘현재’ 랍니다” (101쪽)*

서로에 대한 존중은 나중에 아닌 ‘지금’ 당장 존중해야 하며, 아동은 ‘지금’ 당장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 껍질이 두꺼운 바나나만 키우면 왜 위험한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말을 환경에 적용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막을 해매다 죽었던 ‘희생양’의 의미와 ‘남아공 흑인 여성의 얼굴들’이란 퀘트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다양성의 개념을 쉽게 풀려고 애쓴 글쓰이의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는 책이다.

저마다의 개성을 존중하고, 더 빛나게 하고,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성의 존중이야말로 말로 나를 위한, 친구를 위한,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임을 이야기한다.

Author

※ 키워드 : 다양성, 인권, 차별, 평화

■ 류은숙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을 키우는 일인 인권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인권운동에는 공부와 글쓰기, 모임 만들기, 용기를 갖고 행동하기 등 아주 다양한 일이 필요해요. 이 책을 읽는 어린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 같이 그 소중함을 함께 나눠요. (출처: 본문 저자소개 글)

스마트한 월급관리의 법칙

김경필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15 ▶ 327.04 김14ㅅ



평촌도서관 진 보 미

‘스치듯 안녕’ 매달 통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월급... 과연 그 월급이 재테크를 위한 최고의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저자는 월급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특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안타까워 한 권의 책으로 스마트하게 월급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총 7단계로 월급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본인의 월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결혼자금, 주택자금, 자녀교육비, 노후생활자금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현실과 밀접하게 나이·목적에 맞추어 돈을 모으는 방법 및 결혼·양육·노후로 이어지는 삶의 변화 순서에 따라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며, 책 중간 중간 체크리스트를 담아 현재 본인의 소비습관·경제개념 등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셋길로 세지 않고 계속해서 올바른 월급관리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준다.

또한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게으른 월급쟁이들을 위해 단계별로 과제를 주어 책만 따라가면 부지런한 월급쟁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월급쟁이 부자는 오늘 어떤 적금을 들지 고민했으면 다음 날 당장 가입한다. 행동을 미루지 않는다. 사실 오늘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결국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랜 상담을 통해 알았다. 부자는 결정을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면서 더 많은 기회를 갖는 것이다. (75쪽)

Author

※ 키워드 : 월급, 통장, 현금, 저축

■ 김경필

저자는 삼성증권의 투자권유대행인과 삼성생명의 컨설턴트 및 재무설계 전문 교수로도 활동 중이며, 경제 금융 전문 기업 '플랜 앤 하우투'의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RTN 부동산 TV에서 <재테크 1번지>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2009년 미래에셋 감사연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2007년 CJ홈쇼핑에서 선정한 삼성 최고 컨설턴트 5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생각의 망치

F. W. 니체 지음 / 스타북스 / 2015 ▶ 165.77 니83ㅅ



비산도서관 문 지 영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히 말하는 상식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생각의 망치’라는 제목에 ‘기존 질서와 고정관념을 깨버린 니체의 혁명, 절대 진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제를 갖고 있다. 니체의 사상을 잘 간추려서 나타낸 ‘진리보다 존재하는 그대로의 실존이 중요하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며 니체, 삶, 아름다움, 지혜, 진실, 인간, 존재, 세상, 사색 등 총 12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고 하이데거의 니체 비평 ‘신은 죽었다’와 니체의 생애와 연보로 마무리된다.

몇 해 전부터 인문학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관련 강의와 도서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으며, 새삼 그것에 대해 곱씹게 하는 사회풍토가 우리 사회에 일어났다. 우리 사회에 인문학이 이렇게 부상한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에 대한 탐구, 우리 자신에 대한 탐구 목이 말랐던 것은 아닐까? 인문학 또는 철학은 참 어렵게만 느껴진다. 진리 탐구는 저명한 학자들이 하는 연구 그 어떤 선상의 것처럼 멀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철학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 우리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금의 진실성과 소중함도 느껴보려는 시간의 필요성이 인문학의 갈증으로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

이 책은 니체의 사상을 쉽게 읽어보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 그의 사상을 짧은 글귀들을 통해 곱씹어 볼 수 있다면 그 또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대의 대답이 진실이라면 그대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해야만 한다.

“과연 그대의 마음 깊숙한 곳이 삶을 긍정하고 있는가? 그대는 만족하는가?

그대 는 무엇을 바라는가?

만약 그대의 대답이 진실이라면 이 잔인한 삶에서 해방될 것이다. (40쪽)

또한 니체의 사상을 담은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의 ‘실존’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가 갇혀있는 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uthor

※ 키워드 : 인문학, 니체, 서양철학

■ F. W. 니체

독일의 철학자로 허우주의와 실존주의의 선구자이다. 본과 라이프치히 두 대학에서 문헌학을 연구하던 중 그리스 정신에 매혹되었고,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철학에 감화 되었고 바그너에 심취했다.

사서추천도서



도서목록

- ✎ 서울 사는 나무
 - ✎ 브랜드 3.0
 - ✎ 맘마미아 월급 재테크 실천법
 - ✎ 시를 잊은 그대에게
 - ✎ 내 엄마
 - ✎ 죽도록 일만 하다 갈 거야?
-

서울 사는 나무

장세이 지음 / 목수책방 / 2015 ▶ 480.4 장54서



석수도서관 김 유 진

차가운 바람에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만물이 활짝 피어오르는 따뜻한 봄이 온다. 봄이 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나무는 바로 벚나무 일 것이다. 봄이면 전국 여기저기 벚꽃 구경꾼들로 북적인다. 봄을 제외하고 인간이 나무에 이토록 열광하며 찾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길만 나서면 보이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궁금해 한 적은 있었을까? 이 책에는 늘 우리 곁에 있어 무감각해져버린 길가의 나무들, 서울의 공원에 사는 나무들, 궁궐에 사는 나무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있다.

해충이 많이 꼬이는 벚나무는 살기 위해 다른 곤충을 공격하는 개미가 필요했고 벚나무는 다른 해충이 꼬이지 않게 하는 개미를 들이는 대신 개미에게 단물을 내린다. 이렇게 나무들은 나름의 생존 방식과 지혜로움으로 도시 곳곳에서 생존중이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 곳곳에 숨겨진 나무들의 모습을 현장감 있는 사진 또한 소개한다.

도시의 나무는 삭막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혼탁한 도시의 공기는 나무가 불어넣는 호흡으로 깨끗해진다. 이토록 무한한 힐링과 이로움을 선사하는 나무에게 인간은 나무 줄기에 담뱃불을 아무렇지 않게 비벼 끄고 밀동에 침을 뱉는다. 또 인간의 필요에 의해 어디론가 옮겨지거나 없어지곤 한다. 인간의 욕심대로만 나무를 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서울의 나무는 점점 지쳐가는 지도 모른다. 고단한 도시생활에 지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말이다.

*“내가 떠돌던 서울은 어찌 웅트고 성장했는지, 지금은 어떠한 도시인지,
이부박한 땅에 왜 그 나무의 씨앗이 도착했는지, 어떤 파란을 이기고
저만해졌는지 살피면서 서울과 서울 사는 나무에 대한 정(情)이 깊어졌다.
이 책이 우리가 밟고 선 땅, 그 땅에 뿌리 내린 우리 곁의 큰 생명,
나무를 올려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16쪽)*

이 책을 읽고 길을 나서면 길에서 스치는 나무들이 예사로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곁에 늘 있었지만 몰라도 너무 몰랐던 나무의 존재를 오롯이 느끼며 나무 산책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Contents

※ 키워드 : 나무, 산책, 힐링

- 나무는 살아있다, 당신이 살아있듯
- 공원 사는 나무
- 길가 사는 나무
- 궁궐 사는 나무

브랜드 3.0



박찬정 지음 / 지식노마드 / 2015 ▶ 325.571 박83



평촌도서관

방은선

기업 경영에 있어 예나 지금이나 브랜드는 “기업의 얼굴”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핵심적이다. 그간의 브랜드 마케팅은 상품 그 자체에 집중하는 1.0 시대를 거쳐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2.0 시대를 지나왔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브랜드 3.0의 시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을까?

저자는 브랜드 3.0 시대에는 소비자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기업의 자체적인 브랜드 개발 또한 필요하지만 소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랜드 3.0 시대의 성공 사례로 화장품 브랜드 “미샤”와 자동차 브랜드 BMW의 “미니” 자동차 모델을 설명하며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브랜드 3.0의 세 가지 전략을 밝히고 있으며 그 세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시장에서 사이공간을 만들어라.

2단계 : 브랜드에 꼬리표를 달아라.

3단계 : 소비자 되먹임을 위한 촉매를 준비하라.

저자는 이 세 가지 전략의 기본 패러다임을 프랙탈에서 찾고 있다. 프랙탈은 자기유사성을 가진 기하학적 구조로 어떤 부분을 확대해보아도 결국에는 전체적인 구조와 본질이 유사함을 의미한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 같은 루트를 거쳐 온 일련의 발전 과정이 더 이상의 표준화가 힘들 정도로 다양화되었으나 그 무질서함 속에서도 이면에 존재하는 질서를 찾고 있다. 브랜드 역시 이와 같다. 무질서화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분석·정리하여 브랜드가 성공하고 진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1인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 책을 읽고 “1인 브랜드 전략”을 세워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uthor

※ 키워드 : 브랜드, 소비자, 프랙탈

■ 박찬정

동위성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시건 주립대에서 광고학 석사 학위를 딴 대한민국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컨설턴트 1호이다. 삼성전자, 애경그룹, LG화학, 호텔신라, NH 농협손해보험 등 다양한 기업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맘마미아 월급 재테크 실천법

맘마미아 지음 / 진서원 / 2015 ▶ 327.04 맘32ㄴ



평촌도서관 박지현

『맘마미아 월급 재테크 실천법』은 10만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재테크 카페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월재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기본적인 재테크 지식과 함께 현역 월급쟁이들이 스터디와 토론을 통해 정립한 이론을 각자 실생활에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들을 수록하여 월급만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초보 월급쟁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총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 <월급 절약저축 실천법>에서는 가계부 쓰기 - 통장 쪼개기 - 펀드 모으기 - 목돈 굴리기 비법 등 절약저축 방법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2단계 <월급 재테크 실천법>에서는 예적금+청약 가입하기 - 펀드 투자하기 - 주식 투자하기 - 부동산 경매하기 - 보험 고르기 - 연말정산 순으로 구성하여 실제적으로 재테크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각 장마다 월급쟁이에게 맞는 실전 알짜 정보와 함께 투자할 분야와 피해야 할 분야, 세부 가이드라인까지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평소 모르고 있던 부분과 잘못 알고 있던 재테크 정보를 체크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보며 스스로 자극받게 된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재테크 이론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회초년생들이 따라하며 실천할 수 있다.

<실천! 절약저축1>

- “푼돈이 목돈 된다!” 하루 한 번 되뇌자
- 1월마다 버킷리스트 만들기
- 신용카드는 잘라버리고 체크카드만 쓰자!
- 가계부 쓰는 습관, 부자의 첫걸음!
- 21일 강제저축
- 출근길 경제뉴스 3줄 요약법
- 자기계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테크!

<실천! 절약저축2>

- 최강 고수 따라하기
- 한 달 10만원으로 살기
- 여름휴가비 20만원 절약하기
- 매일 푼돈 500원을 목돈으로 바꾸는 비밀달력
- 앱테크로 소소하게 용돈 벌기
- 매월 통장 1개씩, 12개 통장 풍차돌리기
- 매주 1,000원씩 늘려가는 52주 적금 완성하기
- 저축액을 확 늘려주는 18개월 적금 도전하기

- 목차 중 -

Author

※ 키워드 : 월급쟁이, 재테크, 저축

■ 맘마미아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후 LG화학에서 근무했다.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재테크를 습관화한 덕분에 내 집 마련과 목돈마련에 성공하여, 행복을 좇아 중소기업으로 이직해 직장생활 중이다. 자신처럼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월급쟁이에게도 저축과 절약습관을 기반으로 재테크를 하면 부자로 은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를 창설하여 운영 중이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

정재찬 지음 / 휴머니스트 / 2015 ▶ 811.609 정73시



호계도서관

강 석 립

누군가 당신에게 좋아하는 시가 있냐고 물었을 때 바로 낭독해 볼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시가 있는가? 아마도 학창시절에 시에 대해 배운 기억은 ‘음률’이라던가 ‘청각의 시각화’와 같은 말을 떠올리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 바쁜 현실 속을 살아가는 젊은 청춘들이 접했던 시는 마음에 감동을 주던 문학이라기보다는 시험 문제 속에서 정해진 의미를 파악해야만 하는 난해한 국어장르가 아니었을까 싶다.

시와 낭만을 잊은 채 살아가는 대학생들을 안타까워한 정재찬 교수는 한양대에서 ‘문화 혼용의 시 읽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진정으로 시를 느낄 수 있도록 시 한 편에 관련된 영화, 가요와 가곡, 그림과 사진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작품들을 적절히 섞어가며 시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본 책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46편의 시를 매개로 사랑, 이별, 가난과 순수함, 역사 등을 담고 있는 시의 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청마 유치환 시인의 애절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연애사와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 <편지>, <8월의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즐거운 편지>는 20살의 어린 황동규 시인이 1살 연상의 여대생에게 쓴 시라는 사실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유명한 이형기의 <낙화>를 통해 이별과 생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와 다양한 작품들을 접하고 나면 마치 한 편의 종합 예술을 감상한 듯한 느낌과 함께 당신의 감수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선생은 말합니다... 시, 아름다운,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듣기엔 꽤 멋있는 말이었지만, 아등바등 살아도 모자랄 판에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면서 잊고 지냈을 겁니다... 그렇그럼 고여 온 그리움들이 여인 가슴 틈새로 푹 터져 나오고, 그러면 그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시와 아름다움과 낭만과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여야 한다는 것을.” (5쪽)

Contents

※ 키워드 : 시, 인문학, 청춘

- 1. 가난한 갈대의 사랑노래
- 2. 별이 빛나던 밤에
- 3. 떠나가는 것에 대하여
- 4. 눈물은 왜 짠가
- 5. 그대 등 뒤의 사랑
- 6. 기다리다 죽어도, 죽어도 기다리는
- 7. 노래를 잊은 사람들
- 8.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엄마



정란희 지음 / 좋은책어린이 / 2015 ▶ 아808.9 총67× 87



어린이도서관 김 성 아

교실의 한 장면이 펼쳐진다. 아이들이 가지고 온 가족사진을 교실에 전시하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야기는 시작한다. 현지는 맨 뒤에 줄을 서서 마음 졸이며 가족사진을 들고 있다. 깔깔거리며 가족이야기를 하는 아이들 틈에 현지는 괜스레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편치 않다.

난 누구를 닮았을까 고민에 빠진 현지는 집에 와서 가족사진을 아무리 봐도 엄마, 아빠랑은 닮은 데가 없다.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 누구지? 현지를 닮은 사람. 웬지 나를 낳아준 엄마의 모습일거라 생각한 현지는 친구에게 나를 낳아준 엄마 사진이라며 날 낳아준 엄마를 꼭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한다.

현지는 엄마, 아빠와 닮은 점이 없다고 솔직하게 엄마에게 물어본다. 6개월에 입양된 현지는 늘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다. 그 이야기가 좋아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현지는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를 그리고 나를 낳아준 엄마를 받아들인다.

*“안 닮으면 어때? 가족이 꼭 닮아야 하나? 난 현지가 현지답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씩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엄마를 닮아서 허약한 것보다 건강한 게 좋고,
엄마처럼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것보다 시력 좋은 게 더 좋고.” (52쪽)*

그 동안 입양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지만 그 중 이 책은 어린 현지의 눈을 통해 입양을 바라보며 아이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좀 더 넓은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엄마의 모습, 현지의 모습을 정답게 그려낸 삽화 또한 인상적인 책이다.

Author

※ 키워드 : 가족, 입양, 엄마

■ 정란희

저자는 2000년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우리 이모는 4학년』이 당선되면서 동화를 쓰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동화 쓰기에 폭 빠져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참 좋아해서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꾸준히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출처: 본문 저자소개 글)

죽도록 일만 하다 갈 거야?

이케다 기요히코 지음 / 올댓북스 / 2015 ▶ 325.211 01874*



법말도서관 이혜준

「죽도록 일만 하다 갈 거야?」는 매일 정신없이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책 제목처럼 죽도록 일만 하다 살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히려 마음이 더 팍팍하고 괴로워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애쓰며 살지 말고 적당히 일하는 것이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행복한 삶을 위해 삶에 대한 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내일을 염려하기 보다는 현실에 충실해야 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에 잡혀있는데 꼭 그럴 필요 없이 직업 대신 취미를 좋아하는 일로 정하면 된다. 대신 나이 먹어도 행복할 수 있도록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땀 흘려 일하고 마시는 맥주가 맛있듯이 어렵게 고생하고 얻은 것들에게서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조건을 따져서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더 재미있으며 조건을 만들어 결혼을 한다면 거기에 얽매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저자는 되묻는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나이를 먹기 때문에 건강이 예전만 하지 못 할 수도 있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 모든 것에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시간이 부족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현재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기에도 모자란 인생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즐겁다고 여기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 ‘진정한 승자’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살날이 많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디 인생을 즐기도록 하자.” (212쪽)

Contents

※ 키워드 : 행복, 인생, 현재

- 삶에 대한 태도 - 너무 애쓰면서 살지 말자
- 취미생활 - 현재를 즐기며 살자
- 돈과 욕망 - 욕심을 내려놓자
- 사고방식 - 상식에 얽매이지 말자
- 나이를 먹는 것 -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사서추천도서



도서목록

- ✎ 만물과학
 - ✎ 세상의 모든 공식
 - ✎ 청춘기담
 - ✎ 걱정 지우개
 - ✎ 흥가분한 삶
 - ✎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52가지
-

만물과학

마커스 초운 지음, 김소정 옮김 / 교양인 / 2016 ▶ 400 초6619만



석수도서관 흥민희

원제 'WHAT A WONDERFUL WORLD'

경이로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 이해하려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궁금했던 한 남자의 과학 이야기.

이 책은 대중 강연과 활발한 저술 활동을 통해 과학과 대중의 거리를 좁히는 데 앞장서 온 과학 저술가 마커스 초운이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로 복잡한 물리학을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세계에서부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세계까지 총 5부 22장에 걸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현실에서부터 마음의 눈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든 세계를 들여다보고 전체를 조망한다.

최초의 세포는 어디서 왔을까? 부터 우주에서 알려진 물체 가운데 가장 복잡한 뇌, 문명의 시작에서부터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지질학, 지구 온난화의 끝은 어디인지? 세포, 우주 등 보이지 않는 세계와 블랙홀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빅뱅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우주가 작은 공간 안에 콕콕 눌러 담겨 있을 때는 분명히 아주 뜨거웠을 겁니다. 자전거 공기 주입기에 압축해 집어넣은 공기가 뜨거운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빅뱅은 뜨거운 빅뱅입니다. 우주는 뜨겁고 조밀한 불덩어리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뒤부터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차가워지고 있으며, 이 차가워진 잔해들이 엉겨 붙어 우리 은하를 비롯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들이 되었습니다. (374쪽)

이 책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학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며 상세한 주석으로 이해를 돕는다. 갑자기 어떤 궁금증이 생겨서 근본적인 해답을 찾고 싶다면 '만물과학' 읽기를 권해본다.

Contents

※ 키워드 : 과학, 생명, 지구, 우주

- 생명은 어떻게 움직이나
- 문명은 어떻게 움직이나
- 지구는 어떻게 움직이나

- '보이지 않는 세계' 는 어떻게 움직이나
- 우주는 어떻게 움직이나

세상의 모든 공식

존 헨쇼 지음, 이재경 옮김 / 반니 / 2015 ▶ 410 쪽 55세



석수도서관

안 영 주

얼마나 많은 공식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까? 이 책에는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공식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왜 나만큼 오래 살지 못하는지, IQ는 어떻게 구하는지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체검사 중에 친구의 기록을 몰래 들여다봤다가 보기에는 나보다 훨씬 날씬한데 체중이 많이 나가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바로 그 친구는 나보다 근육량이 많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 청바지 똥똥해보여? - 체질량지수>에 담겨있다.

34도가 넘는 한 여름에 더위를 피하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땀이 다 식고 급기야 추워지기 시작해서 따뜻한 코코아를 사서 마셨다. 그런데 얼마 후 코코아는 식어버렸지만 나의 체온은 여전히 37도이다. 왜 그럴까? 우리 몸은 항상 37도를 맞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체의 온도변화는 물체와 주변의 온도차에 비례한다는 뉴턴의 냉각법칙이 숨어 있다.

사실 수학은 살아가면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수학공식을 주변에서 발생하는 52개의 수학이야기로 친절히 설명한 이 책은 비전문가들에게 수학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싶다.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 도입된 지 100년이 흘렀다. 지구 곳곳에서 35억 살이 넘는 암석들이 발견됐고, 지구에 떨어진 운석 중에는 나이가 45억 년에 달하는 것도 있다. 달 탐사선이 가져온 월석도 35억 년에서 40억 년짜리들이 수도룩하다. 방사성 원소라는 현재까지 제안된 가장 진보하고 가장 정밀한 시계에 따르면,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살이고, 오차범위는 $\pm 1\%$ 다. 그동안 겪은 풍파를 생각하면 우리의 지구는 나름 정정해보인다. (202-203쪽)

Contents

※ 키워드 : 수학, 공식, 실생활

- 황금비 1.618:1
- BMI 체질량 지수
- SPF 자외선 차단지수

- 뉴턴의 냉각법칙
- 개의 나이 $\times 7 =$ 사람의 나이
- IQ 구하는 법

청춘기담

이금이 지음 / 사계절 / 2015 ▶ 813.6 이173*



만안도서관 최 미 송



제목에 들어간 ‘청춘’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청춘기담』의 소년, 소녀들은 죽음과 가깝게 닿아 있다. 「서툰보이」의 현기는 새로 바꾼 휴대폰 번호의 옛 주인이 세상을 떠났음을 알게 되고, 「1705호」에 사는 가족은 자꾸 집 주변에 나타나는 소년에게 마치 귀신과 같은 서늘함을 느낀다. 「즐거운 유니하우스」의 윤은 타국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한다. 음울하고 기이한, 그러면서도 담담하게 지속되는 삶. 그것이 이 책에 나오는 십대들의 삶이다.

작가 이금이가 5년여 동안 쓴 단편을 모은 이 작품집은 “청춘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 되어 버린 시대”를 되돌아보게 한다. 6편의 소설에 등장하는 10대 주인공들은 모두 기괴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천국의 아이들」의 가출 모범생 준은 폐건물에서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는 파란머리 소녀를 만나고, 「나이에 관한 고찰」에서 민서는 웬일인지 흰머리와 주름이 가득한 노인으로 변해버리는 식이다. 기담(奇談)의 외피를 쓴 이야기들을 읽으며 독자들은 이내 보게 된다.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생활고에 지친 어른들 사이에서 시들어 가거나 성적 경쟁에 밀려다 못해 생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말이다.

‘헬조선’의 절망감이 우리에게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요즘 십대들의 이야기에서 미래에 대한 설렘, 첫사랑의 벅참, 꿈을 향한 열망 등을 기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겨자씨만 한 희망의 씨앗”을 찾고자 하는 이유는 작가의 말대로 ‘그러함에도’ 우리는 살아가야하기 때문이다. 울며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청춘들의 모습은 체념과 무기력에 가려져 있던 희망과 행복을 조심스레 꿈꾸게 만든다. 『청춘기담』의 등장인물들이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겪으며 어제보다는 약간 나은 오늘을 살아갈 것처럼 말이다.

Author

※ 키워드 : 청춘, 기이, 괴상, 희망

■ 이금이

1984년 데뷔 이후 아이와 어른을 모두 사로잡는 감동적인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소천아동문학상과 윤석중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여러 편의 작품을 올렸다. 대표작으로 동화 『너도 하늘말나리아』, 『밤티 마을 영미네 집』,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등과 청소년 소설 『유진과 유진』 등이 있다.

걱정 지우개



서석영 글 · 김소영 그림 / 바우솔 / 2015 ▶ 아 813.8 바66바 23



박달도서관

배 성 현

티벳 속담 중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재미있으면서도 깊은 의미를 가진 말이 있다. 여러 뜻으로 풀이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아무리 걱정을 한다 해도 걱정거리가 해결되지는 않으니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누구나 걱정 없는 삶을 원하지만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 이렇듯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걱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걱정은 마음의 짐이라는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걱정은 걱정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통해 그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순기능도 분명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걱정거리들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며 그것에 대한 걱정은 말 그대로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마음의 짐으로써만 작용한다.

이 책에는 걱정이 많은 아이가 나온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 오빠에 대한 걱정, 친구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던 아이는 이모할머니가 건네준 걱정을 지워주는 토끼 모양의 지우개를 사용함으로써 걱정거리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알게 된다. 결국 자신이 통제 할 수 없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걱정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아이는 어느새 다른 친구의 걱정을 들어주는 아이로 변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걱정을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자신의 걱정거리들을 써보고 그것을 지우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마음의 짐을 벗어낼 수 있다는 작은 팁을 말해주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의 걱정으로 인해 걱정거리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거리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전에 했던 자신의 걱정이 나중에 되돌아보았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 자체가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Author

※ 키워드 : 걱정, 근심, 행복

■ 서석영

동화작가. 방정환문학상(동화부문), 한국아동문예상, 샘터동화상 수상.

<육 전쟁>, <날아라, 돼지꼬리!>, <뽀뽀어질 거야>, <선생님이 네 거야?>, <남자친구가유행이래!>.

<엄마는 나한테만 코브라>, <가짜헬라, 제발 그만해!>, <위대한 똥말>, <아름 살 대머리> 등을 썼습니다.

즐거분한 삶

이시카와 리에 지음 / 심플라이프 / 2015 ▶ 337.04 이58ㄴ



평촌도서관 박 하 영

좋은 집과 차, 넉넉한 은행잔고, 좋은 인간관계와 타인의 인정, 그리고 보기 좋은 외모까지, 소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기를 바라는 것들이다. 이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번아웃'이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바랐지만 어쩐지 속은 허해지고 자신이 소진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터인가 버리고 덜어내는 단순한 삶에 대한 책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제목에서 청량감마저 느껴지는 이 책에는 중년 이후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는 여섯 사람의 생활이 담겨있다. 끊임없이 하고 싶은 일과 좋아하는 일을 찾으며 나다운 삶을 모색하는 수필가, 손님과 친구가 되는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부부,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타인의 평가를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50대, 작은 집에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수공예가. 그들이 사는 작은 집과 낡은 가구, 단출한 살림살이에서는 정갈함이 느껴지고 만족스러운 인생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나답게 사는 게 행복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내면의 풍요로움에 주목한다면 2부 실천편에 제시된 삶을 단순화하는 실천 방법도 참고할 만하다.

“온통 내가 좋아하는 것에 둘러싸여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인생은 꼭 그렇지 않다.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나다운 삶을 선물해주지 않는다. 나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본문 중-

Contents

※ 키워드 : 삶의 균형, 여가, 시간관리

- Part 1 즐거분한 삶에 관한 이야기
- Part 2 즐거분한 삶의 실천편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52가지

최은규 지음 / 소울메이트 / 2015 ▶ 670.15 최67ㄴ



비산도서관 김수현

다양한 매체와 장소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클래식을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느껴진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의 저자 최은규는 서양음악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단원을 거쳐 현재 음악평론가와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며 클래식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 '악기와 오케스트라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가장 큰 악기인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준다. 2장 '알면 더 즐길 수 있다, 클래식 용어 풀어보기'는 교향곡, 협주곡, 카덴차 등 클래식 음악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기본적 용어지식을 바탕으로 3장 '세상을 뒤흔든 작곡가와 명곡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비발디, 슈베르트와 같은 음악가와 그들의 작품소개와 명곡의 탄생 비화를 들려준다.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은 오랜 궁정악사 생활을 정리하고 60세가 넘어서야 귀족이 아닌 대중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었다. 12곡의 <런던교향곡>은 대중을 위한 음악을 만들고자 했던 그의 열정 그 자체일 것이다. 4장 '감상의 묘미를 더하는 클래식 에세이'에는 여행지에서 어울리는 클래식, 바다를 담은 클래식 등 테마별로 클래식 명곡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장 '신화의 세계를 담아낸 클래식 이야기'에는 클래식 음악에 담긴 신화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이 책을 '한 권으로 엮어낸 클래식 입문서'라고 말한다. 몰랐던 분야에 대한 입문서는 언제나 반갑다. 책 한 권을 읽고 난 뒤 듣는 클래식 음악은 또 다른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Contents

※ 키워드 : 서양음악, 클래식, 오케스트라

- 1장 악기와 오케스트라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
- 2장 알면 더 즐길 수 있다, 클래식 용어 풀어보기
- 3장 세상을 뒤흔든 작곡가와 명곡 이야기
- 4장 감상의 묘미를 더하는 클래식 에세이
- 5장 신화의 세계를 담아낸 클래식 이야기

사서추천도서



도서목록

- 📖 과학자의 연애
 - 📖 시간 부자가 된 키라
 - 📖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 📖 계란찜 아빠, 고막 남편
 - 📖 밤밤이와 안녕할 시간
 - 📖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

과학자의 연애



박민아 외 지음 / 바이북스 / 2015 ▶ 404 과921바



석수도서관 김 태 영

인류의 과학사를 이끈 위대한 과학자들의 연애는 어떠했을까? 우리의 연애와 마찬가지로일까? 아니면 보통 사람의 연애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이 책은 6명의 저자가 6명의 과학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연애사를 담았다. 소개되는 과학자는 독일 태생의 이론물리학자로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 밀레바 마리치, 남편과 함께 방사능 연구를 하여 최초의 방사성 원소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 마리 퀴리 & 피에르 퀴리, 중성자에 의한 인공방사능 연구를 한 엔리코 페르미 & 라우라 페르미, 침팬지의 육식 행위와 도구 사용을 발견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동물학자 제인 구달 & 휴고 반 라웁,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모델인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 & 남자들, 근대과학에서 최초의 여성 과학자인 에밀리 & 볼테르이다.

뉴턴은 틀렸다. '물체의 진정한 운동 상태'를 알아낼 방법은 없다. 마리와 나, 둘 중 누가 먼저 상대방을 좋아했는지 판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꿈속에서 누가 상대방에게 다가갔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내 눈앞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진짜, 완전히 정지해 있는 기준에 대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우리가 아는 한,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니까!(31쪽)

이 책은 인류의 삶을 바꾼 과학자의 과학적 성과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과학에 문외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위인전에서는 읽지 못했던 과학자들의 사생활을 엿보며 재미와 깊이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과학 교양서이다. 천재들도 풀지 못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풀게 한 과학의 신비, 그 오묘한 관계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Contents

※ 키워드 : 과학, 연애, 과학자, 삶

- 사랑은 상대적이다_알베르트 아인슈타인
- 프랑스와 폴란드가 사랑한 과학자_마리 퀴리
- 아내에게 자서전을 헌사받다_엔리코 페르미
- 타잔이 아닌 제인의 남자 친구_제인 구달
- 컴퓨터와 사과를 남겨두고 떠난 천재_앨런 튜링
- 과학과 역사에 혁명의 씨앗을 뿌린 연인_에밀리

시간 부자가 된 키라

최영미 지음 / 을파소 / 2016 ▶ 아325.2112 최94 ㅅ



평촌도서관

이 유 립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고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여유 있게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기다 허둥대며 하루를 마친다.

「시간 부자가 된 키라」의 주인공 키라는 항상 스케줄에 밀려 친구와의 약속시간을 어기고 숙제를 빠뜨리며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초등학생이다. 어린 나이에 주식부자가 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할 것 같은 키라도 시간 관리는 맘처럼 쉽지 않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간을 계획하고 잠을 쪼개면서 계획표를 실천해보지만 무리한 스케줄은 키라의 생활을 더 엉망으로 만들게 된다. 이후 시간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등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를 왜 하고 싶은지 이유와 목표가 명백해야함을 깨닫게 된다.

재미있는 줄거리에 판타지가 가미된 자기경영 동화로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어렸을 적부터 계획성 있는 시간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계획성 없는 어른들에게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시간 관리의 비법을 제공해주지 않을까 싶다.

1. 시간을 아끼려면 모니카처럼 메모하고 기록해 두면 좋아요.
2. 시간을 절약하는 이유와 목표를 생각해야 한다.
3. 시간을 절약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4. 지금을 즐겨라. 내 시간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한 순간도 잊지 말자.
5. 오늘을 열심히 산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내일이다.
6.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Contents

※ 키워드 : 자기경영 동화, 시간관리

- Part 1 시간이 부족해
- Part 2 시간의 마법
- Part 3 시간의 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사사키 후미오 지음 / 비지니스북스 / 2015 ▶ 199.1 사52ㄴ



평촌도서관 진 보 미

미니멀리스트는 무엇일까? 작가는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아무 물건이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 외의 물건을 과감히 줄이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은 과연 필요한 것일까?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을 갈구한다. 그 이유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익숙하여 싫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분명 새로 산 옷이었고, 입을 때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잠시 뿐 어느새 싫증을 느낀다.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물건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불만이 쌓이고 불행마저 느끼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는 것으로 불행을 떨쳐버리자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은 어렵게 생각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미 미니멀리즘을 실천해 본 경험이 있다. 바로 '여행을 떠날 때'이다.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물건을 챙긴다. 한두 가지 빠진 물건이 있을 수 있지만, 도착지에서 사면 그만이기 때문에 발걸음은 매우 가볍다. 여행지에 도착하여 숙소로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자. 숙소는 매우 깨끗하고 놓여 있는 물건은 수건과 욕실용품 정도이다.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바로 침대에 누워버려도 되고 가방만 놓고 숙소를 나와도 된다. 이것이 바로 출가분하게 인생을 사는 미니멀리스트의 삶이다.

이 미니멀리즘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면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 방법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다. 늘어난 물건들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 본연의 삶을 찾고자 한다면 이 책을 통해 비움의 기술을 습득해보자.

Author's story

※ 키워드 :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스트, 최소한

사사키 후미오는 작은 메모지 한 장도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여 여유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미니멀리스트들의 생활을 접한 후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 그는 물건을 줄일수록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없어졌다고 한다.

계란찜 아빠, 교막 남편

탁경국 지음 / 이상복스 / 2015 ▶ 818 탁146계



호계도서관

왕 신 예

부자 아빠, 돈 잘 버는 남편의 시대는 가고 친구 같은 아빠, 부지런한 남편의 시대가 왔다. 저자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공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다.

1장에서는 부부가 각각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을 하고, 맞벌이 부부가 아침과 저녁을 분담하여 준비하는가 하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경험 등을 소개하며 저자 가정의 부부간 협업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장과 3장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와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 기업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우리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적었다.

4장과 5장에서는 학교폭력 이야기를 그리고 6장에서는 저자가 들려주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실천하는 웃음과 생활의 지혜를 나누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변화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정에서부터의 시작이 중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가사 및 육아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관참은 제도만 도입되면 행복한 가정생활이 찾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스스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깨닫게 되고, 그 제도를 얻기 위해 투쟁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 돕는다.

이 책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이웃과 더불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를 영원하며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Author

※ 키워드 : 가정, 행복, 공동육아

■ 탁경국

198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고, 1995년 (주)대우자동차에 입사해 경영기획실에서 2년간 근무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법무법인 공존에서 일하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이다. 2007년에는 마포구 공동육아 참나무어린이집의 이사장을 하며 '공동육아'에 즐겁게 참여했다.

밤밤이와 안녕할 시간



윤아해 글 · 조미자 그림 / 스퀴라 / 2015 ▶ 아082 스875○ 13



어린이도서관 김 지 혜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건 모두 끝이 있어.

그래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할 때가 있지.”

이 책에서는 주인공 아이가 키우던 강아지 밤밤이의 죽음을 통해 아이가 겪게 되는 이별에 대한 감정의 변화단계와 헤어짐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준다.

아이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면 항상 자신을 반겨주고 이불 속에서도 같이 잠들던 밤밤이와 이제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슬프기도 하고 처음 겪는 당황함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밤밤이의 부재를 인정하게 된다.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밤밤이의 장난감과 사진을 정리하면서 밤밤이와 나누었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슬픔을 이겨내게 되고, 새로운 강아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탄생에 대한 감사함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쁨도 배우게 된다.

이별방법 1. 충분히 슬퍼하기: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할 때가 있지.

슬플 때는 우는 게 당연하니까 지금처럼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어.

이별방법 2. 사실 받아들이기: 네게 일어나 일을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해야해.

이별방법 3. 너무 오래 기운 빠져 있지 않기: 충분히 쉬는 건 좋아.

하지만 계속 축 처져서 누워 있는 건 안 돼.

이별방법 4. 잘 쉬기: 몸이 아플 때 쉬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쉬는 게 중요해.

또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하면 도움이 될 거야.

이별방법 5. 추억 정리하기: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날 거야. 그러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있어. 슬플 때 우는 것처럼 웃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미안해 할 필요는 없어.

이별방법 6. 안전하게 화내기: 잊었다고 생각하며 잘 지내다가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날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게 좋아.

이별방법 7. 새로운 사랑 받아들이기: 이별하고 사랑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이별방법 8. 마음 단단해지기: 원하지 않더라도 살면서 이별은 어쩔 수 없이 찾아와.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겨 낼 힘이 있어.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면 마음도 자라지.

Author

※ 키워드 : 이별, 죽음, 슬픔

■ 윤아해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아동문학을 공부하였고, 아동문학과 창작을 가르치며 관련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꽃신>, <달기의 흥겨운 하루>, <잘 자라라 내 마음>, <오줌싸개>, <내 진심은 멋져요> 등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베르벨 바르테츠키 지음 / 걷는나무 / 2016 ▶ 189.2 바297ㄴ



평촌도서관 윤 이 령

우리의 삶은 항상 상처투성이다. 자신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낄 때처럼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상처받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책은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똑같이 상처를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들의 차이가 바로 자존감에 있다고 설명한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감정으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상처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도록 두지 않는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이 본인의 잘못인지 상대의 잘못인지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상대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따라서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찾고 싶다면 상처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부당한 모욕을 거부해야 한다. 상처를 받을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존감의 회복이며 상처를 극복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되찾았다면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마음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 키워드 : 마음상처, 자존감, 심리

- 세상이 당신을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 더 이상 모든 일을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 사고방식 - 상식에 얽매이지 말자
-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사서추천도서



도서목록

- ✎ 뼈가 들려준 이야기
 - ✎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 ✎ 벽 속의 아이들
 - ✎ 부러지지 않는 마음
-

뼈가 들려준 이야기

진주현 지음 / 푸른숲 / 2015 ▶ 471.5 진76뼈



석수도서관

김 은 아

사람의 몸은 200여 개가 넘는 뼈로 이루어져 있다. 뼈는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단단한 조직 중 하나로 온몸 구석구석에 흩어져 우리가 걷고, 뛰고, 춤추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뼈의 역할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각기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각자 다른 위치에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는 때로는 신원 감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몸이 변화한 증거를 간직하여 사건을 해결해주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저자는 뼈의 다양한 모습과 역사를 들여다보며 뼈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 뼈가 간직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쇠골은 어떻게 몸 속 지문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갈비뼈는 어떻게 말 못하는 아이의 학대를 밝혀낼 수 있으며 광대뼈는 인종을 밝히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의 이야기는 그동안 왜 우리 몸속에 존재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던 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또한 뼈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을 통해 건강에 대해 우리가 '~카더라'로 어렵פות이 알고만 있었던 지식을 바로 잡아주고, 뼈의 역사를 훑아보며 포유류, 그 중에서도 인류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분석하고 인류의 출발에 대해 과학과 상반되는 학문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뼈에는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진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최초의 인류 루시'를 통해 320만 년 전 인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듯이 말이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죽은 사람의 뼈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지만, 땅 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각기 다른 시대에 태어난, 다른 연령층의 유골은 과학자들에게는 인류 진화에 대해 밝혀낼 수 있는 열쇠임은 틀림없다.

저자의 본업은 전쟁에서 실종된 군인들의 유해를 찾아 그들의 뼈를 분석하여 이름을 찾아주고, 가족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어느 날 고향과 가족을 뒤로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연락은커녕 생사도 알 수가 없게 된다면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한다. 죽어서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눈감을 수 있도록.

Contents

※ 키워드 : 과학, 뼈, 인류진화

- 살아 있는 뼈가 들려준 이야기 : 우리 몸속 다양한 뼈
- 뼈 속 물질이 들려준 이야기 : 알면 알수록 놀라운 조직, 뼈
- 오래된 뼈가 들려준 이야기 : 뼈대 있는 동물의 역사
- 죽은 뼈가 들려준 이야기 : 뼈는 진실을 알고 있다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구상희 지음 / 다산북스 / 2016 ▶ 813.7 구526ㄴ



만안도서관 김란아

탈출하고 싶은 상황에 처한 사람의 사연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주인공 '진'은 오래 사귀 연인의 결별 선언, 오지로의 인사발령, 청천 벽력같은 사기 피해를 연달아 겪는다. 진이 전 재산을 쏟아 부었으나 사기를 당해 망해버린 식당에서 울분을 곁씹는 와중, 그녀의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난다. 묘한 분위기에 스스로를 마녀라고 칭하는 여자는 진에게 '당신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테니 나에게 이 식당을 빌려 달라'고 말한다. 진은 사기꾼을 향한 복수를 빌었고, 마녀가 시키는 대로 그녀가 만들어준 스테이크를 먹으며 사기꾼에 대한 분노를 떠올린다. 두 시간 후, 진의 소원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진은 즉시 마녀와의 동업을 결심하고 '마녀식당'은 문을 연다.

음식을 먹으면 손님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녀식당. 대가는 꼭 돈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식당에는 마법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이 작품은 맛깔나고 유쾌한 분위기의 판타지이지만 한국의 모진 현실에 단단히 발을 붙이고 있다. 만년 공시생이면서도 나를 이용하고 버린 연인, 영혼을 옥죄는 취업난, 지옥 같은 학교폭력과 따돌림... 손님들이 혹독한 대가에도 불구하고 마녀에게 애정, 취직, 복수를 비는 이유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대가는 신체의 일부, 목소리, 기억 등 결코 만만치 않은 것으로서, 소원 성취라는 행복의 뒷면에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진은 이 그림자를 떨쳐낸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후반부에서, 진은 마녀가 씌운 마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외의 선택을 한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바로 용서와 사랑임을 깨닫는다. 복수의 죄책감과 저주의 결과는 언제까지고 자신을 따라오기 마련이기에, 그렇게 진은 궁극적인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해 낸다. 그리고 힘든 이들에게 치유와 기적을 안겨주는 존재로서 한 발짝을 내딛는다.

Contents

※ 키워드 : 마법, 마녀, 기적, 행복

- 마녀식당 비긴즈
- 핫, 핫초콜릿
- 네 영혼을 위한 토마토 수프
- 힘을 내요, 영계백숙
- 연분말이 잔치국수
- 엄마표 김치 콩나물죽
- 마녀가 되다

벽 속의 아이들

원명희 지음 / 바람의아이들 / 2015 ▶ 아 808.9 높53바 34



박달도서관

유 민 정

누구나 한번쯤은 소통하기 어려운 누군가로 인해 고민에 빠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면 차라리 벽을 보고 아무 말이나 해대고, 화풀이를 하면서 그 순간을 넘기는 게 낫다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책이 있다. 냉혹한 세상에 마음을 달아버린 아이들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감춰져있던 사람들의 속마음을 ‘벽 속의 세상’이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형상화한 독특한 판타지 작품 『벽 속의 아이들』을 소개한다.

작품의 배경인 ‘벽 속 세상’은 사람들의 내면 상처로 인하여 만들어진 세상이다. 차마 친구와 소통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위로받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벽을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마음의 문을 꼭꼭 닫은 12살 소년 난희. 상처투성이에 장애를 지니고 있고 말을 더듬는 이 아이는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어 차라리 벽을 보고 이야기한다. 어느 날, 말없이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던 벽이 갈라지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벽 속의 세상에는 바깥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가짜’들이 있다. 이들은 벽을 향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들의 고통을 흡수해 점점 거칠게 변해간다. ‘가짜’들이 강해져 진짜 세상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 맞서게 된 난희는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자신만이 상처 입었다 여기던 난희는 다른 사람의 상처들을 보며 자신만이 아픈 것은 아님을 알고 마음을 열게 된다. 한편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여러 학원을 전전하며 힘들어 하는 경희와 관심을 끌기 위해 자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유나. 이 아이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현실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응원하며 끝까지 손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이야기이다.

소통이란 다른 이에게 마음을 열어야하는 일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차마 보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현실을 그려내고 있어 아프기도 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기도 하는 『벽 속의 아이들』은 어른들 또한 공감하기에 충분한 책이다.

Contents

※ 키워드 : 벽, 상처, 소통, 가짜

- 첫!
- 억울한 누명
- 변하지 않는 사람들
- 비밀
- 갈라지는 벽
- 벽 속의 할머니

- 이상한 벽 속 세상
- 가짜들의 눈물
- 일그러진 얼굴
- 제자리 찾기
- 동굴에서 만난 사람들
- 피할 수 없는 운명
- 새로운 출발

부러지지 않는 마음

사이토 다카시 지음 / 국일미디어 / 2016 ▶ 199.1 사68번



법말도서관 신 아 영

가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려 계획한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 나뿐만의 일은 아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부분은 사소한 것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자신감을 상실한다. 그리고 금세 의욕을 잃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은 이렇듯 '마음이 부러진' 세대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팁을 제공한다.

부러지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한 세 가지 방법

1.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주변에 쌓아두면 그 속에는 타자성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저자는 동양의 '인연'의 관점에서, 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인연으로 생각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생각은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인연을 개척하라고 한다.

2. 타인과 깊이 있게 사귈다

강인한 정신은 깊이 있는 교제에서부터 나온다. 저자는 타인과의 밀고 당기는 관계 속에서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어야 자기 정체성이 굳건해지며 긍정적인 자아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세 번째 방법인 정체성의 확립과도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

3. 정체성에 뿌리를 내린다

실패를 겪거나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게 되면, 지금 내가 서있는 곳에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뿌리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이 뿌리내릴 곳을 찾고,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멘토를 찾으라고 한다. 인생의 힘든 시기를 '정체성의 두터운 뿌리'로 삼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여간해서 흔들림이 없다.

이외에도 저자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실천방법으로 자신만의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말한다. 좋은 습관이 생활에 고정되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한다. 자신의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좌절과 실패가 두려워 주저하게 될 때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Author

※ 키워드 : 마음, 삶, 위로, 처세

■ 사이토 다카시

1960년 일본 시즈오카 출생. 도쿄대학교 법학부 동 대학원 교육학 연구과 박사를 거쳐 현 메이지대학교 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식과 실용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글로 교육전문가로서 왕성한 활동 중. 저서로는 『소리내어 읽고 싶은 일본어』,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가지 힘』 등 다수가 있다.

사서추천도서



도서목록

- ✎ 우주의 여행자
 - ✎ 우리는 부동산으로 월급받는다
 - ✎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
 - ✎ 이토록 환해서 그리운
 - ✎ (법륜 스님의) 행복
 - ✎ 친절한 돼지 씨
-

우주의 여행자

도널드 여맨스 지음 / 플루토 / 2016 ▶ 443.44 여3319우



석수도서관 김 종 역

우리가 사는 지구를 둘러싼 수많은 소행성과 혜성,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뿔별을 보며 소원을 빌고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 하지만 언론에서 소개하기도 한 것처럼 지구 주위의 수많은 소행성과 혜성이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약 6,500만 년 전에는 10km급 소행성이 지구를 덮쳐 공룡을 멸종시켰다고 하고, 최근 2013년에는 러시아에 작은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그 지역 주민 1,500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소행성과 혜성은 고유의 자기 궤도를 가지고 있지만, 워낙 가벼운 탓에 주변의 영향으로 궤도가 쉽게 바뀐다. 그래서 어쩌다가 지구 주변으로까지 오게 되면 ‘근지구천체 (Near Earth Objects, NEO)’라고 불리며 언젠가 지구와 충돌할지도 모를 ‘위험한’ 천체가 된다. 지금까지 지구 주변에서 크고 작은 근지구천체가 1만 개 이상 발견됐다. 이들 가운데 지구 궤도에 750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해 충돌을 일으킬 정도로 큰 소행성이나 혜성은 ‘지구위협천체’라고 한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근지구천체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탐사관측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매달 3,000개의 소행성과 10개의 근지구천체가 발견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도널드 여맨스 박사는 오랫동안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행성과학자로 일해 온 소행성과 혜성 분야의 권위자다. 최근 소행성과 혜성, 근지구천체, 지구위협천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책은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근지구천체가 지구와 충돌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저자의 계산에 따르면 “1~2킬로미터 급 소행성이 충돌해도 지구의 인구 수십억 명이 사망하며, 이러한 사건이 평균 100만 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른 재난과 달리 근지구천체와의 충돌은 단 한 번으로 인류문명 전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소행성을 먼저 찾는 일이 중요하며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우리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내야만 한다.”**

Contents

※ 키워드 : 소행성, 혜성, 지구, 우주

-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웃
- 태양계, 그 기원
- 행성이주가 만들어낸 근지구천체
- 생명을 주고, 파괴하다
- 근지구천체,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추적하나
- 소행성과 혜성, 그것이 알고 싶다
- 소행성, 우주의 보물창고
- 지구를 단번에 파괴한다
- 충돌을 예측하다
- 다가오는 근지구천체 방향 바꾸기

우리는 부동산으로 월급받는다

김수영 · 젊은부자마을 지음 / RHK / 2016 ▶ 327.87 김56ㅇ



평촌도서관

김 보 근

최근 불안정한 고용과 경제적 불황 속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 외에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며 적금, 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다. 위험부담이 크고 종잣돈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투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방식은 아닐 것이다.

저자는 경제적 자유란 내가 일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직장생활만으로 이러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판단한 저자는 20대 초반부터 각종 경제신문 및 재테크 관련 서적들을 통해 관련 지식을 쌓으며 치열하게 모은 종잣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였다. 9년이 지난 지금 20억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여 부동산으로 월급 받는 시스템을 구축한 저자는 실전에서 얻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담은 책 「우리는 부동산으로 월급받는다」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향한 방법 중 하나로 부동산 투자 방법을 전한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에서는 저자 스스로가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부동산 경매 투자의 원칙을 다룬다. 물건의 검색에서부터 수익 실현까지 부동산 경매를 통해 구체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한 사이클로 보고, 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Part 1에서는 각 단계별로 숙지해 두어야 할 투자의 기본 원리와 각종 제도를 설명하고, 동시에 초보투자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좋은 노하우를 담고 있다. Part 2에서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마을'을 통해 만난 16인의 초보 투자자들이 월급 외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생생한 경험담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초보투자자들이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저자는 부의 창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소액의 종잣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라고 말한다. 이 책은 초보투자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노하우를 최대한 담은 것으로 부동산 투자 이론과 실전을 동시에 익힐 수 있는 유용한 책이다.

Contents

※ 키워드 : 부동산, 월급, 경매, 투자

- Part 1 부동산 투자를 위한 탄탄한 기초 다지기
 - 젊은 부자 유비의 부동산 경매 특강

- Part 2 부동산 투자를 위한 탄탄한 기초 다지기
 - 리얼 왕초보 16인의 투자 분투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

정유신 · 구태언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15 ▶ 327.249 정66ㄴ



평촌도서관 박지현

세계 금융시장은 이미 핀테크가 대세다. 핀테크(Fin Tech)란 금융(Finance)의 “Fin”과 기술(Technology)의 “Tech”를 합쳐 일반적으로 금융과 IT기술의 결합을 의미한다. 특히, 과거에는 금융이 기술을 주도하여 왔지만, 이제는 모바일 결제 · 클라우드 펀딩 · 온라인 전용은행 등 기술이 금융을 개척하여 선도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세계 금융 일변지인 뉴욕과 영국에서는 앞 다투어 핀테크 업체에 투자하고 있으며, 금융 낙후국으로 불렸던 중국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등 이러한 금융 환경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핀테크란 무엇이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현재 금융의 큰 트렌드인 핀테크 사업의 모습을 살펴본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위치는 어디이며 향후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자투리 돈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중국의 머니마켓펀드 ‘위어바오’, 더치페이에 최적화된 미국의 간편 송금서비스 ‘벤모’, 다수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한국의 p2p대출 플랫폼 ‘8퍼센트’, 환전 없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하는 중국의 ‘알리페이’ 등 핀테크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세계인의 생활을 살펴보고 시작한다. 각 챕터 곳곳에서 우리가 흥미를 가지기 쉬운 일상 속의 사례를 들며 1~5장은 핀테크 지원센터장인 정유신 교수가, 6장과 7장은 구태언 변호사에 의해 쓰여 졌다.

머지않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핀테크는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기술과 융합한 금융은 앞으로 더 투명하고 편리하며 저렴하게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터넷·모바일 금융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과 핀테크 붐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핀테크 사업에 대해 크고 작은 화두를 던지며 한국이 핀테크라는 큰 흐름에 대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Contents

※ 키워드 : 핀테크, P2P대출, 클라우드펀딩, O2O

- 핀테크, 일상을 바꾸다
- 돈의 흐름을 바꾸는 매직 키워드
- 핀테크 글로벌 전쟁의 서막
- 코리아 핀테크, 위기가 기회다
- 이제껏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 규제는 풀고, 특허전쟁에 대비하라
- 핀테크, 기회는 있다

이토록 환해서 그리운

전수민 지음 / 마음의 숲 / 2016 ▶ 818 전56○



호계도서관

허지희

저자 전수민은 전통한지와 우리 재료를 이용하여 우리 정서를 표현하는 한국 화가이다. 사랑하는 사람, 해와 달을 느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성스럽게 그려낸다. 빠른 그림 그리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화가의 느낌을 충분히 살린 느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그의 성격은 글에서도 돋보인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언젠가 사라지는 또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마음으로 기억하려 애쓴다. 이런 저자의 삶을 향한 태도는 모든 게 쉽고 빠르게만 흘러가는 요즘의 세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해와 달은 늘 같이 있어요. 그곳이 아니면 저곳에.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지구를 버티고 있는 내내 모두에게 공평했지요.
우리가 알 때도 그랬고, 우리가 모를 때에도 그랬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햇빛이나 달빛을 더 가질 수는 없어요.*

저자의 자유롭고 신비한 문체는 읽는 이들을 보듬고 위로해주는 강한 힘이 있다. 포근한 햇빛과 은은한 달빛을 소재로 한 그림과 어우러져 그리움과 사랑, 기다림, 따뜻함, 그리고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대감을 선물해준다.

인류 최초의 그림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달을 보면 그리운 많은 것이 떠오른다고 고백한 저자는 그리움과 기다림을 책속에 담고자 노력했다. 오직 마음으로만 보이는 것, 보이지 않기에 더 잘 보이는 것들을 그림으로 담아냈다. 거기에 시적 상상력을 더한 깊은 사색의 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처럼 아름답고, 더없이 환한 행복을 가져다준다. 쉼표 없이 앞으로 달려만 가는 우리의 일상을 한번쯤 돌아보게 하는 책으로 지쳐있는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애쓰지 말아요 조금 느슨하게 생각해요.
애를 쓰면 마음이 달아요. 조금 덜 갖고 조금 덜 기대하면 되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행복해져요....*

Contents

※ 키워드 : 해, 달, 그림, 행복

- 봄 달, 위로 솟다
- 여름 달, 사방으로 퍼지다
- 가을 달, 아래로 내려오다
- 겨울 달, 사방에서 모이다

[법륜 스님의] 행복



법륜 지음 / 나무의마음 / 2016 ▶ 199.1 법296*



법말도서관 김 윤 하

이 책은 저자가 전국과 세계의 강연장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과 답변 중 함께 생각해볼 만하고 호응을 얻었던 내용을 선별한 것이다.

1장에서는 나의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순, 허위의식, 욕심에 대한 생각 등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하여 저자가 실제 예를 들어 이야기 해준다. 2장에서는 화, 후회, 실수, 불안, 열등감 등 일상을 통해 매일 겪는 개인의 다양한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야기 해준다. 3장에서는 관계, 결혼, 직장생활 등 타인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언급 하였으며, 4장에서는 관계의 형성으로 만들어진 더 큰 틀인 사회에서의 공존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조언해준다. 5장에서는 다시 나로 돌아와 스스로가 선택하여 행복을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마무리 한다.

이 책은 특정 종교에 관한 가르침이 아닌 누구나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결혼을 해야 하나요?”, “나는 왜 좋아하는 일이 없을까요?”, “힘든 직장 상사를 어떻게 하나요?” 하는 등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냉정하지만 따뜻하고, 단순하지만 명쾌하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표지의 “행복해지고 싶지만 길을 몰라 헤매는 당신에게...”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기면 나오는 너무나 단순한 아래의 문구가 모든 답변을 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 법구경 -

이 책은 온갖 일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수 있는 뜻밖의 행운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Author

※ 키워드 : 법륜, 스님, 행복, 조언

■ 법륜 스님의 다른 책

<스님의 주례사>, <엄마 수업>, <인생 수업>, <방황해도 괜찮아>, <지금 여기, 깨어 있기>, <새로운 백년>
<야단법석>, <특별한 선물>,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행복한 출근길>, <답답하면 물어라> 등 다수

친절한 돼지 씨

신정민 글 / 바우솔 / 2015 ▶ 808.9 바66ㄴ 25



어린이도서관 최 윤 숙

꿈속에서 원하는 걸 보게 해주는 꿈 안내자인 친절한 돼지 씨는 아이들의 순수한 바람과 상상력 넘치는 꿈을 귀담아 들어주고 자유롭게 꿈 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른들이 돈과 명예와 같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계속 찾아오자, 돼지 씨는 어린이 손님만 받기로 한다. 말썽 피운다고 항상 꾸중을 듣는 첫 번째 손님 담이는 꿈에서 말썽 피우기 올림픽에 참가하여 과자 흘리며 먹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다. 꿈에서 깬 담이는 신이 나서 이렇게 재미난 꿈은 처음이라고 말한다. 공부도 꿀지, 운동도 꿀지, 잘 하는 게 없는 두 번째 손님 샘이는 돼지 씨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들 모두 아무 걱정 없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며 꿈속에서 고래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날아가길 바란다.

**“생각해 보면 어른들 꿈은 그저 자기 욕심으로만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꿈은 어디까지나 다 같이 행복하기를 바랐지요.” (81쪽)**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의사, 판사, 경찰, 선생님” 등의 흔한 답변을 할 것이다. 어른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고 명예를 바라는 것처럼 아이들도 막연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꿈을 통해 자신들의 고민과 솔직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기발하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치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는 마치는 글에서 자신의 꿈을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지구를 구하고 싶어요. 제가 쓴 글을 어린이들이 재미나게 읽고 멋진 꿈과 생각을 키우고, 이다음에 커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을 거예요” (이야기를 마치며 중)

자유로운 꿈을 꾸며 다른 이들도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이들의 꿈을 보며 우리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다.

Contents

※ 키워드 : 꿈, 희망, 행복

- 친절한 돼지 씨
- 부자가 된 비밀, 대통령이 된 비밀
- 꼭꼭 숨는 돼지 씨
- 돼지 씨의 새로운 작전
- 담이, 첫 번째 아이
- 말썽 피우기 올림픽

- 샘이, 두 번째 아이
- 걱정 구름, 걱정 세상 안녕!
- 겸이, 세 번째 아이
- 억지 과일과 작은 나무, 큰 나무
- 줄줄이 이어지는 꿈, 꿈, 꿈
- 꿈을 따라간 돼지 씨
- 사라진 돼지 씨

사서추천도서



도서목록

- 📖 동물들의 소송
 - 📖 수학적 사고법
 - 📖 종의 기원
 - 📖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 대화
 - 📖 공부 중독
 - 📖 사운드 맵
-

동물들의 소송

안토니 F.괴첼 지음 / 알마 / 2016 ▶ 491.508 괴8329동



석수도서관 이 절 석

동물에게도 존엄성이 있을까?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다. 그런데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 키워지고 도축되는 동물들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 저자 안토니 F.괴첼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동물들을 대신해 30년 넘게 싸워온 동물변호사이다. 이 책을 읽고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습관이나 고정관념에 다소나마 불편함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소개한다.

책은 크게 우리들이 사랑하는 동물과 관련된 10가지 질문을 뽑아 문제제기를 하고, 그에 대해 여러 단계로 생각하고 논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0가지 질문은 모두 '동물의 존엄성'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동물과 인간의 공정한 관계 정립에 구체적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왜 고양이는 무릎에 앉히고, 생선은 프라이팬에 놓을까?', '귀여운 개 종류인 비글을 동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 하지만 생쥐를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무신경한가?'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동물에 대한 '애정', '사랑' 등과 같은 인간의 감정적 요소보다는 '동물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동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올바른 기준이다.

저자는 개인이나 사회 전체가 동물을 바람직하고 양심적으로 대하는 방식을 통해 서로 어울려 사는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좀 더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기를 부탁한다. 의도적이든 무지에서든 동물들의 존엄성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도덕적 경시로 이어지고, 이는 인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Contents

※ 키워드 : 동물, 소송, 동물복지

- 사랑이나 법이나
- 왜 고양이는 무릎에 앉히고, 생선은 프라이팬 위에 올릴까?
- 우리의 태도가 동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동물애호가일까?
- 모든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 요구의 문제가 아니다
- 동물에게 이로운 것
- 가족이 필요한 이유
- 존재에 대한 질문
-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수학적 사고법

요시자와 미쓰오 지음 / 사과나무 / 2016 ▶ 410 요58수



석수도서관

오 세 은

점차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수학적 사고방식을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수학적 사고에 대한 잘못된 풍조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의 첫 장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수학에 대한 오해’에 관하여 이야기 한다. 수학이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단순한 계산연습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인도의 수학교육은 단순히 공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시행착오-증명력-설명문’의 순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장에서는 ‘시행착오’라는 사고법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이러한 사고법은 방법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시간을 줌으로써 스스로 생각해보고 경험하여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문득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연구하는 사람에게서 “생각지도 못했던 실수나 사람과의 만남 덕분에 큰 발견, 발명을 하게 됐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평소 솔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있었기에 단순한 실수나 사람과의 만남에서 작지만 결정적인 자극이 주어져 그것이 커다란 발견, 혹은 발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p.63)

3장에서는 수학적 사고의 핵심은 목표부터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목표를 봤다는 사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열쇠’가 있으며, 3차원(점보다 선, 선보다 면으로 설명)으로 설명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수학적 사고방식은 단순히 수학이라는 교과목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수학적 사고방식 안에는 우리의 생활 속 사회문제나 인간 개인의 문제를 생각하거나 설명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힌트가 넘쳐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수학을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더불어 수학적 사고법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 키워드 : 수학적사고, 시행착오, 논리적 설명

- 1장 수학에 대한 오해
- 2장 ‘시행착오’라는 사고법
- 3장 ‘수학적 사고’의 핵심
- 4장 ‘논리적인 설명’의 열쇠

종의 기원

정유정 지음 / 은행나무 / 2016 ▶ 813.6 정66*



만안도서관 조 윤 주

술한 여름밤을 보냈음에도, 모기가 웅웅거리고 무더위가 정신을 잡아끌어 깨우는 밤에는 말짱한 정신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게 된다. 그럴 때 최고의 방법은 꿈처럼 빠져들 수 있는 책을 드는 것인데, 정유정의 신작 「종의 기원」은 적적하고 끈적한 여름밤을 시원하게 만들 작품이다.

주인공이 자다가 눈을 뜬 것이 피냄새 때문이고,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 살해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책장을 몇장 넘기지 않은 독자에게 선뜻 던지며 첫 시작부터 암담함을 준다. 파격적인 시작으로 시작하는 「종의 기원」은 주인공을 통해 ‘악’에 대한 2가지 생각을 가지게 해준다.

첫째는 주인공 ‘유진’의 악이다. 뉴스나 영화를 통해 접하는 사이코패스의 범죄에 대해 이 범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전지적 측면이나 타인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고 ‘나’를 통해 바라본다. 내가 인지한 상황과 그에 대한 생각의 흐름에 맡기다 보면, 그가 지닌 ‘악’은 특별한 사고를 지닌 이가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들 중 어느 것이 싹이 터서 크게 자라냐에 따라 달려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는 주인공 ‘유진’을 둘러싼 타인의 ‘악’이다. 실질적 악행을 저지른 유진과 비교하면 주변 사람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범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다양한 ‘악’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자신의 신념과 의심을 굳게 믿고 유진의 행동반경을 정하는 유진의 엄마, 유진의 엄마와 함께 유진을 악물로 통제하는 유진의 이모, 유진을 자신의 도덕적 잣대로 그어버리는 해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잔혹한 일탈을 꿈꿨던 유진의형 유민, 저마다의 ‘악’을 가지고 유진을 통제한 결과, 유진의 ‘악’이 싹트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악의 크기에 따라 먹고 먹히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형성을 섬세하게 잘 묘사한 부분과 흡입력 있는 이야기 전개에 감탄하다보면 어두웠던 여름밤이 어느새 밝아져 온다.

Author

※ 키워드 : 악, 사이코패스, 포식자

■ 정유정

2007년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세계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7년의 밤」, 「28」으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소설가이다. 치밀한 구성과 섬세한 묘사로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출간작으로 「내 심장을 쏴라」, 「정유정의 히말라야 환상방황」 등이 있다.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 대화

김미경 글 / 우리학교 / 2015 ▶ 아 189 김38어



박달도서관

김 현 진

어린이 여러분! 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에 쌓여 답답한가요? 아무도 내 맘을 알아주지 않아 슬프고 외로운가요? 그렇다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또 내 몸에 아픈 데는 없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몸과 마음을 주의 깊게 돌보다 보면 나와 나의 대화가 시작된답니다.

이 책에는 10가지 친구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7번째 이야기인 상원의 일기를 볼까요? 학교 수업시간에 치자 물들이기 모둠활동 중 지은이가 상원에게 치자를 달라는 장면입니다.

“몇 개?”, “알아서 줘.”, “몇 개라고 정확하게 말해야지?”, “나도 처음인데 어떻게 아니? 적당히 주면 되지.”, 손에 잡히는 대로 줬더니 “야,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해. 아우 짜증나.” 부탁을 하면서 도리어 짜증을 내니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상원이 기꺼이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먼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부탁을 할 땐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하기, 긍정적으로 말하기, 의문문 혹은 청유문으로 말하기. 또한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는 ‘관찰, 느낌, 필요, 부탁’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 아침에 일어나기 피곤한데 엄마는 밥을 먹고 가야 한다고 깨웁니다.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엄마에게 소리 내 말해보세요. 또 엄마께 말씀드릴 때는 엄마 몸이나 마음 상태를 살피고 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이름 붙여 느끼고, 내 몸과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면 보다 잘 알 수 있답니다.

1. 관찰 : (나는)엄마, 아침에 ‘일어나라.’라는 소리를 들을 때
2. 느낌 : (나는)피곤하고 힘들어요.
3. 필요 : 왜냐하면 5분이라도 더 자고 싶기 때문이에요.
4. 부탁 : 좀 더 잘 수 있게 아침밥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주먹밥이나 콘플레이크가 어떨까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집에서, 학교에서, 세상 어디에서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부드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Contents

※ 키워드 : 비폭력대화, 대화, 모험상당

- | | | |
|------------------|----------------|------------------------|
| ■ 나를 들여다봐요 | ■ 보고 들은 대로 말해요 | ■ 부탁해요 / 내 마음을 내가 알아줘요 |
| ■ 상처 주는 말을 알아차려요 | ■ 느낌을 말해요 | ■ 화가 날 땐 이렇게 말해요 |
| ■ ‘나’ 로 말을 시작해요 | ■ 필요를 말해요 | ■ 칭찬도 비난도 똑같아요 |

공부 중독

엄기호, 하지현 지음 / 위고 / 2015 ▶ 330.911 엄18ㄱ



평촌도서관 박 하 영

가난한 살림에 대학 등록비를 대려 아버지는 귀한 소를 내다 팔고, 여동생들은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던 시대가 있었다. 그렇게 큰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면 보란 듯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던 그런 때가 있었다. 한국전쟁으로 신분제가 사라지고 난 뒤, 공부는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성공 보증수표로 떠올랐다. 공부만큼 보답하는 것은 없었고, 공부만이 능력으로 인정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단어가 가진 힘은 막강하다. 공부는 좋은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훌륭하다. '나 지금 공부 중이야'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방해해선 안 된다. 잔소리하던 엄마도 바로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런데 왜 저자들은 한국 사람들의 끝없는 '열공 모드'를 걱정하는 것일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부는 더 이상 삶의 문제를 푸는 도구가 아니다. 도리어 공부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다. 사회 모든 영역이 학교화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학생 취급을 받고 있다. 아직 배우는 입장이고 준비가 덜 되었다고 규정하는 순간 개인의 능력은 '열정페이'로 모욕당하고, 도전하지 않는 웅크린 삶도 정당화된다. 더 나아가기 위해 공부하지만 공부와 삶을 분리시키고 공부에만 몰두하는 삶은 더욱 빈약하고 허약해지기 마련이다. 그 빈약함을 채우고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 공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쌓는 경험과 다양한 인간 관계가 그것이다. 이렇게 시간과 금전의 과잉투자에 비해 공부가 보여주는 아웃풋은 보잘 것이 없다. 공부 끝에 새로운 삶이 보장되던 시대는 끝난 것이다.

공부가 성공 보증수표라는 믿음은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고착화된 사회구조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자들은 그런 상황을 전제하면서도 끝없이 돌고 도는 이 트랙에서 내려오는 개인이 늘어야 블랙홀의 중력이 깨진다고 지적한다.

Contents

※ 키워드 : 공부, 학벌사회, 대담

- 부제 : 공부만이 답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 1부 공부에 중독된 아이들
- 2부 누가 공부에 욕심을 내는가
- 3부 중독에서 해독으로

사운드 맵



이진성, 박재철, 이영미 지음 / 라임북 / 2015 ▶ 673.511 0178ㅅ



비산도서관 문 지 영

봄은 지나가고 여름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곧 장마가 시작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무더위를 이겨내야 할 것이다. 빗줄기 소리에 혹은 무더위 속 잠 못 이루는 한여름 밤에 무심코 지나쳤던 서울 곳곳이 지니고 있는 음악세계로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라디오 PD 두 사람(이진성, 박재철)과 대중예술 등의 평론·연구가(이영미) 셋이 모여 '비주얼한 장소를 청각적인 음악을 통해 재구성해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 라디오 다큐 <사운드 맵>'의 원고를 손질하여 도서로 출간하였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한강, 노래를 가르다'라는 주제 아래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그 곳에 담겨진 음악을, 제2부에서는 '청계천, 노래 사이로 흐르다'라는 주제 아래 북촌 종로와 남촌 명동에 담겨진 음악을 다룬다. 제3부에서는 '해방구, 노래를 불러 모으다'라는 주제 아래 이태원, 대학로 그리고 홍대 앞을, 제4부에서는 '지하철 1호선, 노래를 실어 나르다'라는 주제 아래 청량리, 영등포, 구로, 동대문과 관련된 노래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을 밤사이 읽고 마음이 이끄는 곳을 낮에 둘러보아도, 무더위가 좀 식은 밤에 음악이 깃든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다녀보는 것도 다 한여름 밤의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2부 청계천, 노래 사이로 흐르다'에서는 모래시계의 이미지가 어른거립니다. 한강이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크게 나눴다면 청계천은 강북을 북촌과 남촌으로 양분했습니다. 물의 흐름과 방향에 따라 사람살이의 모습이 달리 형성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나 봅니다. (126쪽, 제2부 Outro 中)

Author

※ 키워드 : 대중문화, 가요, 음악이야기

■ 이영미

1961년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같은 대학원에서 <1920년대 대중화 논쟁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사과정을 밟는 대신 마당극과 민중가요가 공연되고 향유되는 진보적 예술문화운동과 대학로 연극계에서 평론가와 연구자로 활동하면서 예술의 대중성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켰다.

사서추천도서



도서목록

- ✎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뇌
 - ✎ 대한민국 미생들에게 주는 7가지 선물
 - ✎ 30분 경제학
 - ✎ 금요일에 읽는 가족의 시
 - ✎ 마음 청소
-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뇌

리처드 레스텍 지음 / Humanist / 2015 ▶ 511.1813 레57인



석수도서관 김 유 진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왔으며 이는 초창기 철학자들이 전념하여 다룬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날엔 과학의 진보로 두뇌의 구조와 활동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그동안 '마음' 만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을 설명하려 했던 것에서 인간의 '두뇌'에 근거를 두고 답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 책에서는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가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중요한 20가지 질문에 대해 신경과학적 발견들을 근거로 답하고 있다.

- 1부에서는 뇌가 어떠한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지 살펴보고,
- 2부에서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감정이 두뇌의 어떤 작용에 의한 것인지 설명한다.
- 3부에서는 인간의 두뇌가 가지는 능력의 특별함과 불완전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 4부에서는 뇌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과학적인 객관적 근거를 들어 이야기할 뿐 신경과학으로 두뇌가 하는 모든 일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즉 '마음 = 두뇌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등식에 대한 완벽한 확신으로 설득하기 보다는, 마음과 두뇌의 상호 작용에 집중하며 두뇌를 마음을 알기 위한 탐구와 연구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마음을 탐구하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Contents

※ 키워드 : 마음, 뇌, 신경과학

- 1부 - 세계를 감각하는 나
- 2부 -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
- 3부 - 특별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나
- 4부 - '나'를 탐색하는 뇌

대한민국 미생들에게 주는 7가지 선물

김한준 지음 / 태인문화사 / 2016 ▶ 325.211 김92○



평촌도서관

이 유 립

무한경쟁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개인은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이공계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조직에서 일하든 생존과 역량강화에 필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이 책은 리더뿐만 아니라 핵심리더가 되기 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7가지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류(流)테크'는 변화와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여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기술이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거나 없어서는 안 되었던 유물 '워크맨', '코닥필름'처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늘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해야함을 뜻한다. 두 번째 '인(人)테크'는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인맥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비즈니스에서 사람을 빼놓고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듯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는 동료와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고 수천 명의 거품인맥보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라고 조언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자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심(心)테크'이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관(觀, Mind)을 가져야하며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인드컨트롤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 자기관리인 '시(時)테크'이다. 줄줄 새는 시간을 잡고 스마트하게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따라 시간을 나누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함을 말한다. 시간은 관리할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발표력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언(言)테크'이다. 말을 잘하는 것도 기술이므로 발표력 향상 기법을 익히고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되라고 이야기한다. 여섯 번째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자(資)테크'이다. 자산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투자와 소비의 개념이 명확하고 실패를 통해 배울 줄 안다.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身)테크'이다.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몸 관리는 전략적이지 못했던 아쉬움은 건강관리도 비즈니스나 정치의 전략만큼 중요함을 보여준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운동과 휴식을 정해놓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기술은 서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위에서 소개한 기술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유익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기혁명의 동력으로 삼길 바란다.

Contents

※ 키워드 : 성공, 자기경영, 테크

- 현재를 의심하라
- 류테크 - 흐름을 감지하고 스스로 변화하라
- 인테크 - 함께 가야 멀리 간다
- 심테크 - 마음 발부터 다스려라

- 시테크 - 시간, 관리할수록 늘어난다
- 언테크 - 말의 주인이 되라
- 자테크 -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라
- 신테크 - 몸부터 챙겨라

30분 경제학

이호리 도시hiro 지음 / 길벗 / 2016 ▶ 320 0195



평촌도서관 진 보 미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알 뿐, 경제를 깊게 파고든 적은 없다. 모르는 용어 투성인 경제를 깊게 파고드는 순간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머리도 아프고,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가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생활환경이 변하고 있다. 평균수명은 90세를 넘어가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 또한 마찬가지다. 만약 급변하는 경제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남은 인생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제를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렵기만 한 경제를 어떻게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책 「30분 경제학」은 20년 동안 교직에서 경제를 가르친 작가의 노하우가 담긴 경제 입문서이다.

이 책은 우리 삶의 꼭 필요한 경제용어만 담아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난이도에 따라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항목마다 상·중·하 난이도를 표시하여 점차 수준을 높여가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책 중간 중간 그래프, 도표, 일러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글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이 책은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한 개의 항목을 배우고, 10시간이면 대학 4년의 경제학을 배울 수 있다고 소개되고 있다. 항목마다 3~10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10장 밖에 안 되는 페이지를 30분 동안 이해하며 읽으면 자칫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읽어 나간다면 경제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는 경제 입문서가 될 것이다.

Author

※ 키워드 : 경제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호리 도시hiro는 도쿄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도쿄도립대학교와 오사카대학교에서 조교수를 거쳐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되었다. 현재는 국립 정책연구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금요일에 읽는 가족의 시

김태훈 지음 / arte / 2016 ▶ 811.7 김883가



호계도서관

강 석 림

‘여러분에게 금요일은 어떤 날인가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은 주중에 고단했던 나에게 포상휴가를 주듯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저녁시간을 즐기며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자 할 것이다. 이때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밖에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아무리 비싼 외식을 해도 그저 그랬던 음식들이 집에 와서 가족들과 웅기종기 모여앉아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와 밥을 먹을 때는 ‘와! 맛있다. 맛있다.’를 연달아 외치며 밥을 먹을 지도 모른다.

여기 그런 따뜻한 밥과 같은 가족에 관한 시를 담고 있는 에세이집이 있다. 저자는 부모님의 사랑, 형제 자매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조부모의 사랑, 함께 겪었던 가난, 가족과의 이별, 가정폭력으로 인한 슬픔, 맞벌이 부부의 애환 등 다양한 가족을 테마로 한 50편의 시를 모아 소개하고, 이 시를 읽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적거나 혹은 시인이 이 시를 지었던 배경을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임길택 시인이 지은 <엄마 무릎>이라는 시는 ‘귀이개’를 소재로 한 가족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이다. 귀를 파주다니, 다소 웃음이 나는 소재이긴 하지만 귀를 파주는 것이야말로 가족이 아닌 남한테 맡길 수 없는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일 것이다.

귀이개를 가지고 엄마한테 가면 / 엄마는 귀찮다 하면서도
햇볕 드는 쪽을 가려 앉아 / 무릎에 나를 누여 줍니다.
그리고선 내 컷바퀴를 잡아 놀이며 / 갈그락갈그락 컷발을 파냅니다.
아이고, 니가 이러니까 말을 안 듣지 ...중략... 고개를 돌려 누울 때에
나는 다시 엄마 무릎 내를 말합니다. / 스르르 잠결에 빠져듭니다. (56p)

금요일에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혹시라도 타지에 나와 있어 가족의 정이 그리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있던 가까이에 있던 책을 읽는 내내 당신은 따뜻한 감정과 가족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 키워드 : 시, 가족, 사랑

- 1.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 2. 어서, 무라
- 3. 사랑을 할 때 우리는
- 4. 착한 당신, 피곤해져도 잊지 마
- 5. 가족의 시간
- 6. 그렇게 행복을 연습해두면

마음 청소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 아르테 / 2016 ▶ 199.1 우64마



법말도서관 이혜준

인생을 살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살아온 날들에 대한 후회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일 수도 있다. 결국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책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로 마음 속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어질러진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면 기분이 후련해지듯 마음 속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면 행복한 나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민과 불안을 씻는 88가지의 마음테라피 실천방법을 소개하였는데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1.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면 고민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고민하지 말자
2.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고 싶다면 긍정적인 말의 힘을 이용하자
3.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는 착각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4. 스트레스의 원인을 모른다면 초조해하는 패턴을 찾아보자
5.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
6. 일상에서 매너리즘을 느끼고 있다면 ‘처음’의 설렘을 다시 느껴보자
7. 너무 바빠 우울한 당신이라면 하지 않을 일을 정하자
8.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된다면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해주는 사람을 떠올리자

저자는 88가지 마음테라피를 철저하게 따르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천천히 조금씩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편안한 마음을 가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최소 21일간은 계속해보라고 권한다. 21일간 하다보면 그냥 지나치며 투덜대던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들이 고쳐지게 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를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정리함으로써 행복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에 이 책을 추천한다.

Author

※ 키워드 : 마음청소, 마음 테라피

■ 우에니시 아키라

일본의 저명한 심리 카운슬러이자 저술가이며 현재는 심리학, 성공 철학 등의 연구 및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습관 심리학』,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까』, 『붓다의 인생 코칭』,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등이 있다.

사서추천도서



도서목록

- ✎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개념
 - ✎ 사소한 것들의 과학
 - ✎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 ✎ 플레이 불
 - ✎ 산도 인생도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세익스피어는 어디에?
-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개념

라파엘 로젠 지음 / 반니 / 2016 ▶ 410 로7419세



석수도서관 홍민희

수학은 생각하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작가 라파엘 로젠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수학과 관련이 있으며,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여야 한다고 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개념』은 수업시간에 달달 외워 풀던 시험문제가 수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을 읽고 우리 주변 세상에 숨어 있는 수학의 매력적인 개념을 배우고 나면 수학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수학개념을 형태, 행동, 패턴, 특별한 숫자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수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맨홀 뚜껑은 왜 둥글까? 원은 맨홀 뚜껑에 이상적인 모양이라고 한다. 맨홀 뚜껑이 맨홀로 떨어지지 않는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원의 형태라고 한다.

버스가 몰려다니는 행동은 왜 일어날까? 버스가 몰려다니는 현상은 카오스 이론의 한 본보기로, 초기 조건의 작은 차이가 결국 극적인 차이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운행시간에 맞춰 출발을 해도 만원버스는 운행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는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운행시간이 짧아져 버스는 결국 몰려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버스 승하차시간에서 생기는 작은 차이가 그 노선에서 운행하는 다른 버스들과의 상대적 위치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글 번역기는 탑재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억 건의 문헌을 훑어보며 패턴을 찾아 단어들 어떻게 번역할 때가 가장 많은지 알아내, 단어의 정의나 문법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통계적인 기계번역을 한다. 이런 번역 방식은 확률에 의지 한다는 점에서 수학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 특별한 숫자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주제별로 분류되어 꽂혀있는 책이다. 이 분류법을 십진분류법이라고 하는데, 십진분류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책이 주로 도서관에 들어온 날짜순으로 서가에 놓였다. 하지만 십진분류법이 도입되면서 도서관 사서들은 책을 주제별로 배열했고, 도서관 이용자들은 직접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었다. 특별한 숫자의 조합으로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쉽게 찾아서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수학은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아름다운 질서로 빛나는 수학개념의 유쾌한 발견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개념』을 추천한다.

Contents

※ 키워드 : 수학, 수학 개념, 기하학, 확률

우주로 날아간 맨홀 뚜껑

도시에 떠도는 전설에 따르면, 1950년대에 있었던 지하 핵실험에서 사고로 맨홀 뚜껑이 우주로 날아갔다고 한다. 이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된 적은 없지만, 어쩌면 1957년 진행된 일련의 핵실험인 '프렐렐 작전'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한 지하 핵실험으로 900kg짜리 금속덩어리가 초당 66km의 추정 속도로 공중으로 날아올랐는데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구 탈출 속도가 초당 11.2km 정도니까 공기저항을 감안하더라도 이 금속덩어리라 우주로 빠져나갔다는 전설이 허황된 추측만은 아니다. (54쪽)

사소한 것들의 과학

마크 미오도닉 지음 / MID / 2016 ▶ 530.4 미65사



석수도서관

안 영 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루미늄과 강철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 나무는 분명히 서로 다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을까? 플라스틱은 더욱 헛갈린다. 누가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차이를 알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일지도 모른다. 도대체 누가 상관이나 할까?”

「사소한 것들의 과학」은 이런 물음에서 시작한다.

이 책의 저자 마크 미오도닉은 자신이 좋아하는 열 가지 재료를 늘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재료에 대해 저자가 붙인 짤막한 수식도 그럴싸하다. 불굴의 강철(Steel), 미더운 종이(Paper), 기초적인 콘크리트(Concrete), 맛있는 초콜릿(Chocolate), 경탄할 만한 거품(Foam), 상상력이 풍부한 플라스틱(Plastic), 보이지 않는 유리(Glass), 부서지지 않는 흑연(Graphite), 세련된 자기(Porcelain), 불멸의 생체재료(Implant) 등으로 애정을 담아 풀어낸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재료’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가 문명화의 단계를 분류할 때 쓰는 이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그리고 철기시대! 인류는 이처럼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 발전, 진화했다. ‘철기시대’라고 하면 오래 전 역사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역시 크게 보아서는 철기시대에 속한다.

이 책은 재료 물질(stuff matter)에 대해 건조한 다큐멘터리, 감성 풍부한 에세이, 흥미진진한 영화 같은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책이다. 재료는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제껏 이렇게 대중적인 서술방식으로 접근했던 책은 처음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재료의 소중함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란다.

Author

※ 키워드 : 재료, 일상탐험

■ 마크 미오도닉

「타임스」가 선정한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100명 중 한 명으로,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기계공학과 교수이다. 디자이너, 과학자, 공학자, 건축가와 예술가의 연구 허브이자 지구에서 가장 놀라운 물질들을 보관하고 있는 재료 라이브러리인 UCL 공작연구소(INSTITUTE OF MAKING)의 소장이기도 하다. BBC나 TED 등의 매체에서 다수의 강연을 진행한 강연자로, 테이트모던과 헤이워드 갤러리, 웰컴재단 등 여러 박물관과 협력해서 일하기도 했다.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히노 에이타로 지음 / 오우아 / 2016 ▶ 321.5 히195ㅇ



평촌도서관 윤 이 령

오늘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 채 ‘서비스야근’을 하고 있는 당신 대신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라는 말을 대신 던져주며 이 책은 시작한다.

당신은 한 달, 평균 몇 시간을 야근하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야근하는 날이 아예 없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야근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대가보다는 보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사축[社畜], 회사의 가축. 어감이 다소 자극적이지만 저자는 사축이라는 단어를 ‘회사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회사원’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사축으로 회사에 헌신해도 오늘날의 회사는 당신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주지 않는다.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 고용안정이라는 말은 다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사축인생은 왜 만들어질까? 사축인생은 초등학교 입학할 시작으로 회사에 입사하면서 완성된다. 일은 자아실현의 수단이라고 교육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개인보다 조직을 중요시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철저히 사축이 된 사람들은 ‘일은 곧 나’라는 믿음 아래 살아간다. 그럼 사축인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4장에서 그 해답으로 이 책을 읽는 누구 중 한명이라도 사축인생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조언하고 있다. 물론 세상에는 일을 통해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기준이 아닌 나의 평가기준, 내 행복은 나의 주관으로 판단하라고 이 책은 당부하고 있다.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괴로운 것이다.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의미한 것이다.

내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재미없는 것이다. (p.167)

Contents

※ 키워드 : 회사, 야근, 보람

- 1장 오늘은 불일이 있어서 정시에 퇴근하겠습니다.
- 2장 회사 다니는 덕분에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 3장 제 꿈은 매일 똥굴똥굴하면서 사는 거예요.
- 4장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괴로운 거지.

플레이 볼



이현 지음 / 한겨레아이들 / 2016 ▶ 813.808 높6719㉸ 34



만안도서관

최 미 송

어떤 일을 사랑하여 몰두하다가도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이것을 계속 해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 스포츠나 예술 분야가 특히 그렇다. 즐기는 마음뿐만이 아닌 또 다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함을 직시하는 때가 다가오는 것이다.

『플레이 볼』의 구천초등학교 야구부는 그동안 늘 전국대회 본선 진출에 실패하던 약팀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6학년에 진학하여 주전으로 뛰게 되었다. 잘 치고 잘 뛰는 루키도 입부했다. 거기다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은 새 감독님까지. 야구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6학년 한동구는 이번에는말로 전국대회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동구의 야구사랑은 뿌리 깊다. 동구의 어머니는 동구를 임신하고도 사직구장에 자주 갔을 정도로 롯데 자이언츠의 열렬한 팬이다. 전설적인 선수 최동원의 이름을 따 동원이라는 이름을 가질 뻔 하기도 했다. 동구는 돌잔치 때부터 야구공을 잡았고 야구팬으로 자랐다. 동구에게 야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구는 야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않다는 걸 서서히 깨닫는다. 작년 야구부 주장 형은 프로야구까지 갈 것도 아니라며 야구를 그만두고, 아빠도 동구에게 야구는 그만 하고 학업에 신경 쓸 것을 권한다. 동생 민구는 엄마가 야구 잘하는 형만 챙긴다는 이유로 마음에 병이 생겨 버렸다. 게다가 짧은 기간 내에 일취월장하는 신입 부원을 보며 '나는 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마음이 복잡해진 동구는 감독님의 작전을 따르지 않았다가 경기를 망쳐 버린다.

야구를 좋아하는 만큼 떠나는 것도 많아진다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이겨야 야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동구는 이제 안다. 동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동구를 늘 격려하는 엄마도, 야구를 그만두라고 하는 아빠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 동구는 가장 후회하지 않을 길을 스스로 택한다.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려워 지금을 잃고 싶지는 않다."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Author

※ 키워드 : 야구, 선택, 미래

■ 이현

단편동화집 『짜장면 불어요』로 등단, 『오늘의 날씨는』, 『마음대로봇』, 『악당의 무게』, 『푸른 사자 와니니』, 『나는 비단길로 간다』, 『임진년의 봄』 등을 썼다. 제10회 전태일문학상, 제13회 창비좋은어린이책 대상을 받았고, 2015년 한국문화예술회관주최 주목할 만한 작가로 선정되었다.

산도 인생도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엄홍길 지음 / 샘터사 / 2016 ▶ 199.1 엄95ㄱ



비산도서관 김수현

엄홍길, 2000년 세계 여덟 번째, 아시아 최초로 히말라야 8천 미터 14좌를 모두 올랐고, 2007년에는 세계 최초 히말라야 8천 미터 16좌 완등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인이다. 어렸을 때부터 도봉산 산중턱을 내 집 마당삼아 살았던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간 설악산에서 이 커다란 산을 내 몸으로 부딪치면서 이 두 발로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는 마음속의 외침을 느낀 이후 자연스럽게 산악인의 길을 걷게 된다.

실패보다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은 이 책의 저자는 놀랍게도 자신을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한 원동력은 성공이 아닌 열여덟 번의 실패라고 말한다. 책 속에서도 그는 정상등반 성공의 기쁨과 환희가 아닌, 등반 중 함께하던 동료의 사고사, 본인의 심각한 등반사고 때문에 등반에 실패하여 하산하며 그가 느꼈던 실패의 맛과 실패의 기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저는 산에서 실패하면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자만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였을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원인을 찾고 목표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세상에 남 탓을 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겁니다 ... 실패는 늘 있게 마련이라고 인정해야지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련이 남은 상태에서 포기하는 것이지요.”

실패를 기회로 만드는 등산과 하산의 기술에 대해서 그는 산 정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산을 내려오는 것이며 우리 삶도 이와 같아서 도전의 진정한 성공은 정상을 찍고 내려와 출발 지점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를 수 있는 것이라 말한다.

올라가는 법만 가르치는 각박한 우리 사회 속에서, 인생은 늘 오르막만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정상을 찍었다 한들 계속 정상에 머무를 수도 없다는 산악인의 경험담을 통해 실패의 쓴맛을 본 후 제자리에 주저 앉아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 발짝 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이다.

Contents

※ 키워드 : 실패, 도전, 등산, 엄홍길

- 여는 글
- 등산의 기술 1~4
- 하산의 기술 1~4
- 인터뷰

셰익스피어는 어디에?



애나 글레이본 글, 탈리 그림 / 큐리어스 / 2016 ▶ 아 842 클294세



박달도서관 이 해 동

2016년은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의 서거 4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16년에는 꼭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 그의 작품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꼽힌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고, 인용하고, 연구하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38편의 희곡과 여러 권의 시집 및 소네트집을 남겼다. 그중 완성도가 높은 비극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를 '4대 비극', 「말괄량이 길들이기」, 「베니스의 상인」, 「뜻대로 하세요」, 「한여름 밤의 꿈」, 「십이야」를 '5대 희극'이라고 한다.

이 책은 셰익스피어가 지은 희곡 중에서 가장 신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작품 열 편 「뜻대로 하세요」, 「줄리어스 시저」, 「십이야」, 「맥베스」, 「템페스트」, 「헛소동」,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한여름 밤의 꿈」,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이 실려 있다.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셰익스피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한 면에는 작품의 특징과 줄거리를 요약 소개하고 다른 면에는 커다란 그림 속에 세밀하게 표현된 희곡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각 그림에서는 등장인물 숨은그림찾기와 그 안에 숨어 있는 셰익스피어도 찾을 수 있다.

작품마다 줄거리가 요약되어 있고 숨은 그림 찾는 재미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극작가와 그가 지은 명작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도 두루 습득할 수 있다.

“은 세상은 하나의 무대이고, 모든 남자와 여자는 배우일 뿐입니다. 그들은 무대에서 퇴장하기도 하고 다시 무대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살아 있는 동안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되며, 그의 연극은 7막으로 이루어집니다.” - 「뜻대로 하세요」 중에서 -

Contents

※ 키워드 : 셰익스피어, 희곡, 햄릿

- 뜻대로 하세요
- 줄리어스 시저
- 십이야
- 맥베스
- 템페스트

- 헛소동
-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 한여름밤의 꿈
- 로미오와 줄리엣
- 햄릿

사서추천도서



도서목록

- ✎ 틀리지 않는 법
 - ✎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 ✎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 ✎ 꿈이 없다고 말하는 그대에게
 - ✎ 누가 뭐래도 난 나야!
-

틀리지 않는 법

조던 엘렌버그 지음 / 열린책들 / 2016 ▶ 410 엘29419들



석수도서관 김 대 영

프롤로그의 제목은 ‘이걸 어디에 써먹을까?’ 이다. 우리가 애를 쓰며 배웠던 적분, 코사인 값을 실생활에서 써먹는 어른의 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힘든 수학공부를 왜 하는 것일까?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나는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정치, 의학, 상업, 신학적 문제들에 수학이 잔뜩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 줌으로써 내가 방금 말한 거창한 주장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모든 문제에 수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수단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p.13)

이 책은 5부 18장으로 이루어져있다. 1장 ‘덜 스웨덴스럽게’에서는 오바마의 건강 보험 개혁법을 둘러싼 논쟁을 도표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설명한다. 이 사례를 통해 선형과 비선형적인 사고의 차이점을 깨닫게 한다.

6장 ‘볼티모어 주식 중개인과 바이블 코드’에서는 확률을 말한다. <일어나기 힘든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이해한다면, 일어나기 힘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확률의 재미있는 면을 보여준다.

11장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리라 기대할 때 실제로 기대해야 할 것’에서는 기대값 개념을 알려준다. 기대값은 진정한 가치를 확실히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값을 매기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방법이고, 이 기대값의 더 나은 이름은 <평균값>일 것이라 얘기한다.

14장 ‘평범의 승리’에서는 기업의 흥망부터 생물학적 유전, 그리고 쉬운 예로 흥런타자의 흥런수를 예로 들며 우리의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이론을 설명한다.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수학적 사고의 힘”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 『틀리지 않는 법』을 추천한다.

Contents

※ 키워드 : 수학, 선형성, 확률, 평균

- 1부 선형성
- 2부 추론
- 3부 기대
- 4부 회귀
- 5부 존재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김민태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6 ▶ 325.211 김38-



관양도서관

방은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행하던 습관이나 버릇들이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된다는 의미이다. 이 책은 '우연히 한번 시작해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저자는 2014년 새해를 맞아 15분 걸기를 다짐하고 한번 실천해보았다. 사소한 다짐을 한번 실천해본 것뿐이었지만, 여덟 가지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저자는 본인의 사례와 다른 이들의 사례를 토대로 '한번 하기의 힘'을 이야기한다. 에어비앤비는 한 디자이너의 즉흥적인 생각을 직접 실천하면서 시작되었고, 구글은 두 대학원생들이 과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졌다.

'한번 하기'의 힘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루고자 하는 바를 미시적으로 쪼개어 성취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작은 일에서 성취감을 얻어내면 그 성취감을 토대로 다음 일에 도전하게 되고, 실패를 한다면 이를 보완하여 또 다른 작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앤디 워홀, 래리 킹, 안도 다다오 등 각 분야에서 유명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이렇듯 성취감을 얻으며 다른 작은 일에 도전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바를 이루며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저자는 두려움을 떨치고 일단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보라고 이야기한다. 일상생활에서 시작해도 좋고, SNS의 힘을 빌려도 좋다. 너무 막막하다면 롤모델을 정하여 그들처럼 실천해보자.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이처럼 하나하나 사소한 일들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작이 반'이라는 시대의 명언을 남겼다.

한번 하기도 마찬가지다. 한번 하면 전보다 쉬워진다.

그리고 맛을 보면 또 하게 된다. 그러다 무언가가 걸린다.

바로 행운이라고 하는 값진 기회다.

Contents

※ 키워드 : 자기계발, 실천, 노력

- 1장 나는 고작 15분 걸었을 뿐이다 : 사소한 실천의 힘
- 2장 나는 고작 30분 읽었을 뿐이다 : 대수롭지 않은 노력의 힘
- 3장 나는 고작 한번 만났을 뿐이다 : 작은 용기를 내는 힘
- 4장 나는 고작 한 줄 썼을 뿐이다 : 그냥 시작하는 힘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백영옥 지음 / 아르떼 / 2016 ▶ 814.6 백646빨



호계도서관

황 신 혜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은 저자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꿈을 향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던 앤의 희망의 말들을 통해 꿈과 일 그리고 사랑으로 현재의 삶에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앤의 그 말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다. 기다리고 고대하는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게 실제 우리의 하루다. 하지만 그럴 때 앤의 말을 꺼내보면 알게 되는 게 있다. 희망이란 말은 희망 속에 있지 않다는 걸.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걸. 그 꽃에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거라고.

책의 시작은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 하고 있다. 자신의 빨강머리를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던 앤이 염색 후 초록머리가 되고 나서야 그토록 싫어하던 빨강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는다. 앤의 일화를 통해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하여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는 것이며,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조금씩 너그럽고 상냥하게 키워준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수에 관하여 저자는 앤의 생각과 함께 적었다. 새로운 실수를 한다는 건 부주의한 탓도 있지만 새로운 실수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지 실수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못하는 걸 잘하려고 자책하며 노력하는 일보다, 잘하는 걸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정성을 쏟는 일이 어쩌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애니메이션의 장면과 함께 유년시절 추억 속 앤의 사랑스러운 말들을 다시 불러와 앤이 모아주는 무한한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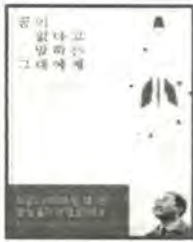
Contents

※ 키워드 : 빨강머리 앤, 희망, 꿈

- 우연을 기다리는 힘
- 고독을 좋아한다는 거짓말
- 슬픔 공부법
-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변한다

꿈이 없다고 말하는 그대에게

우에마쓰 쓰토무 지음 / 마일스톤 / 2016 ▶ 325.211 우64 ㄸ



법말도서관

신 아 영

막연히 좋아하는 것을 쫓아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조건을 두게 되었다.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이렇게 ‘좋은’ 출신을 획득해야만 안정적으로 살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한다. 경쟁에는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생긴다. 실패한 자들은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라는 진부한 질문에도 저자는 명확히 대답한다. “로켓을 만드는 것” 이라고. 동네공장에서 그는 자신의 꿈이었던 로켓을 만들어 3,500m까지 쏘아 올렸다. 어느 누가 동네공장에서 로켓을 만들었다면 믿겠는가.

그는 꿈에 대한 동경만 하지 말고 꿈에 다가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으라고 한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찾으라고 한다. 저자는 자신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닌텐도의 부품을 활용한 경험을 들어 발달된 시대의 혜택을 활용하라고 한다. 즉, 어렵게만 생각되던 일이 어쩌면 가까운 공구매장만 가도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되, 실패했다면 다음엔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미래의 자신을 결정짓지 말라고 한다. 할 수 있다는 굳은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조금 귀찮지만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동료를 만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로켓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가 꿈을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버팀목이다. 일련적인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잊은 지 오래인 것 같다. 가능성 넘치고 천진한 어린 아이처럼 터무니없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가벼운 놀이처럼 꿈에 다가서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마음속에 점화되길 기다리는 로켓이 하나씩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Author

※ 키워드 : 꿈, 현실, 자기계발, 처세

■ 우에마쓰 쓰토무

일본 홋카이도 출생인 그는 유년시절부터 비행기를 좋아했고 대학에서는 유체역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항공기설계 일을 하다 그만둔 뒤 부친의 <주식회사 우에마쓰전기>를 이어받아 재활용 전자석 시장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다. 그 후 주위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로켓 ‘가무이’를 개발, 고도 3,500m 까지 날아오르는데 성공한다. 현재에도 로켓 개발, 우주공간 관련 실험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전작으로 『나사보다 우주에 가까운 동네공장』이 있다.

누가 뭐래도 난 나야!



최영미 글, 지영이 그림 / 키즈엠 / 2016 ▶ 아 813.808 꿈16*



어린이도서관 김 지 혜

이 책에는 단짝친구인 놀이대장 '이지훈'과 공부대장 '차봉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각자의 꿈과 개성으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지훈이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만 해도 놀라운 상상력으로 기발한 놀이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해주고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던 인기쟁이였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받아쓰기 빵점, 엉뚱한 질문쟁이, 숫자도 모르는 한심한 어린이로 선생님께 혼만 나고 친구들이 무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봉구는 어렸을 때에는 아빠와 공부를 하느라 지훈이 외에는 다른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으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받아쓰기 백점, 영어 1등, 모범생 어린이로 선생님께 칭찬만 듣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쟁이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옆 놀이터에서 나쁜 형들에게 돈을 뺏기고 있는 봉구를 지훈이가 구해 주면서 그동안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부러움을 털어놓고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가 어떤 모습이든 멋진 우정을 유지하기로 약속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작가는 지훈이와 봉구이야기 뿐만 아니라,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선택한 직업에 불만이 많은 지훈이의 부모님, 유명한 대학을 가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믿는 봉구의 부모님 이야기를 통해 아이가 갖고 있는 꿈은 성적이 아닌 스스로가 가진 장점과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통해 찾아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아직은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내가 갖고 싶은 모습을 가진 누군가를 보며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는 어떤 모습의 나이든 사랑하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노력하는 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 「작가의 말」 중에서 -

Author

※ 키워드 : 자존감, 장래희망, 창작동화

■ 최영미

단국대 문예창작과 대학원 졸업.

2004년 어린이동산 중편동화 공모에서 <누가 우모강을 죽였을까?>로 최우수상을 받으며 등단.

지은 책으로 <스티커전쟁>, <뽕쟁이 선생님>, <좌충우돌 선거운동>, <최고의 소리를 찾아서>, <시간부자가 된 키라> 등이 있습니다.

사서추천도서



도서목록

- ✎ 김상욱의 과학공부
 - ✎ 사소한 것들로부터의 위로
 - ✎ 즐겁게 살자, 고민하지 말고
 - ✎ 리더의 아침수업
 - ✎ 내 손끝 작은 구멍
-

김상옥의 과학공부

김상옥 지음 / 동아시아 / 2016 ▶ 404 김526김



석수도서관

유 민 정

다른 인간을 사랑해야만 하는 우주론적 이유

우주는 텅 비어 있다. 지구가 모래 알갱이만 하다고 가정하면 태양은 오렌지 크기가 되고, 지구는 태양에서 6미터 거리에 위치한다. 오렌지 크기의 태양이 부산역 광장 분수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은 부산역 플랫폼에 위치한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별인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하려면 일본 홋카이도 북쪽 끝까지 가야한다. 결국 부산역을 중심으로 반경 1,600킬로미터 이내에 오렌지 한 개량 모래 알갱이 몇 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따라서 주변에 무언가 물질이라 부를 만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 자체로 기뻐해야 한다. 생명체는 지구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다. 내 주위에 생명체 가운데 나와 같은 종(種)을 만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다른 인간을 사랑해야만 하는 우주론적 이유이다. (p. 13)

호기심에 가득 차 과학서적을 뒤적여보다 딱딱하고 어려운 문장에 책을 내려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철학하는 과학자'라 불리우는 김상옥 교수의 「과학공부」는 쉽게 과학분야에 다가갈 수 있는 경험을 선물합니다. 양자역학을 전공하는 물리학자이면서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글을 써온 김상옥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철학과 시를 품은 물리학 이야기라는 인문학적 감성으로 과학이론을 어렵지 않게 풀어 나갑니다.

저자는 과학이 어려운 것은 그것이 낯설어 보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자연을 제대로 보는 것을 방해하는 인간의 다양한 상상 속에서 일부러 낯설게 보는 것이야말로 과학의 첫 걸음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과학도 고발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신화와 동요에 눈감고, 모른 척하는 과학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과학자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과학자라면 항상 끊임없이 "나는 과학자인가?"를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김상옥 교수. 과학자도 당연히 인간이니, 과학이 인문학과 만날 기회가 항상 있어왔다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적 사고를 천천히 풀어 이야기로 들려주니, 과학을 통해 인문학을 꿰뚫는 즐거운 과학 공부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키워드 : 과학, 인문학, 철학

- 제1장 과학으로 낯설게 하기
- 제2장 대한민국 방정식
- 제3장 나는 과학자다
- 제4장 물리의 인문학

사소한 것들로부터의 위로

무무 지음 / 프롬북스 / 2016 ▶ 199.1 무36사



석수도서관 김 은 아

「오늘도 인생 여정을 걷는 당신에게」 - “ ‘소확행(小確幸)’ 이란 말을 아시나요?”

저자는 ‘오늘도 인생 여정을 걷는 당신에게’ 라는 말로 책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우리는 제각기 인생이란 길고 긴 여정을 걷고 있다. 걸다보면 현실의 크고 작은 벽에 부딪혀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이 나와 반대의 길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만 뒤흔치는 것 같고 나만 못한 것 같은 생각에 괴로움에 휩싸이기 일쑤다.

그런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이 있다. ‘소확행(小確幸)-작지만 확실한 행복’ 뜻의 단어다. 저자는 세상의 모서리에 부딪혀 힘겨울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것은 곁에 늘 있었던 사소한 행복이라고 말한다. 친구들, 가족들, 고대하던 여행, 따뜻한 햇살, 비온 뒤 맑은 하늘,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 것들은 곁에 있어도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이 책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사소한 일과 그 속에 숨겨진 행복한 삶들로 가득 차있다. 저자는 5장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 - 물 한 잔의 의미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조용한 들판 위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나듯 평범한 삶 속에 아름다운 사랑이 숨어 있는 법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한다면 곳곳에 숨어 있는 사랑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p.198)

우리는 제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삶은 더 좋거나 더 나쁜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삶일 뿐이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 또한 오롯이 내 몫이다. 행복은 그다지 멀리 있지 않다. 내 주위를 둘러보며, 내 자신을 충분히 돌이켜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인생을 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내가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의 관념이 어떠하던 세상의 시선이 어떠하던, 또 최후의 결과가 어떠하던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자. 그래야만 인생 여정에서 아무 의미 없는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 (p.16)

Contents

※ 키워드 : 사소함, 행복, 현재, 인생

- | | |
|-------------------------|--------------------------|
| ■ 1장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즐거운 삶 | ■ 2장 내려놓으면 자유롭다 |
| ■ 3장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 ■ 4장 거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풀처럼 |
| ■ 5장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 | ■ 6장 베푸는 삶이 아름답다 |

즐겁게 살자, 고민하지 말고

에쿠니 가오리 지음 / 소담 / 2016 ▶ 833.6 에876*



만안도서관 조 윤 주

다큐멘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공감을 느끼는 데에서, 어쩌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소설 '즐겁게 살자, 고민하지 말고'는 자신만의 인생 논리로 살아가는 2번가의 세 자매 이야기를 담았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첫째 아사코, 사회에서는 인정받으나 연애 사업은 늘 제자리걸음인 둘째 하루코, 친구의 애인을 넘보지만 평범한 일상을 사는 옆집 주부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는 막내 이쿠코 세 자매의 모습을 보여준다. 처음엔 어떻게 이들의 이야기로 '즐겁게 살자, 고민하지 말고'라는 제목을 끌어내게 되나 싶다. 하지만 소설은 세 자매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풀어나가는 작은 변화를 보여준다. 자신의 입장과 비슷한 사람을 도우며 조금씩 변화를 가지는 아사코는 결국 남편의 폭행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얻게 되며, 어떤 일을 하든 후회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하루코는 이별의 아픔을 극복한다. 50대 아저씨나 친구의 애인이나 모두 자신의 남자로 만들던 막내 이쿠코는 우연한 기회에 놀러가게 된 옆집 가정 주부의 평범한 일상을 훑쳐보며, 자신도 그 집의 평범한 일상에 스며들 단계를 밟아 나간다.

현실을 재미없게 느끼고, 눈앞에 닥친 일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세 자매는 좀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단조로운 현실을 새롭게 끌고 나가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재미있는 일들을 맞이하기 위해 조금의 변화를 가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번가 가족이 있다. 제멋대로 살지만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2번가의 가족이 오랜만에 '즐겁게 살자, 고민하지 말고'라는 가훈 아래 평화로이 모이듯, 마음속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모습을 서로 응원하는 가족의 모습에 또 다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uthor

※ 키워드 : 일상, 사랑, 가정폭력

■ 에쿠니 가오리

요시모토 바나나, 야마다 에이미와 함께 일본 3대 여류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작가로, 국내에는 『냉정과 열정사이』, 『반짝반짝 빛나는』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실 속 본질적 고독을 소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소설들을 주로 썼으며, 간결한 문체와 세련된 감성을 담아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팬들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리더의 아침수업

KMA리더스모닝포럼 강연자 12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6

▶ 325.24 কে68=



관양도서관

김 윤 하

이 책은 한국능률협회(KMA) 주최로 각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교류하고 강연을 듣는 『리더스모닝포럼』의 100회를 기념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12개의 강연을 지식 콘텐츠 기부를 받아 발간한 것이다.

파트 1에서는 창의적인 트렌드 리더들의 생각을 공유한다. 기존의 드라마 형식을 파괴한 <응답하라> 시리즈의 이명한 CJ는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디테일하고 감성적인 변화를 추구 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무자본 창업으로 출시 이틀만에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한 <배달의 민족>을 개발한 우아한형제들의 대표 김봉진, 베스트셀러 “구베씨의 행복수업”의 저자 프랑수아 롤로르, 관객을 사로잡는 성공비결을 이야기한 이준익 감독을 통해 트렌드를 주도할 여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파트 2에서는 리더의 성공비결인 조직의 관리, 설득과 협상, 인재관리에 관한 열쇠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인사전략을 제시한 범죄심리학자 표창원, 모바일 어플을 기반으로 한 온디맨드¹⁾ 시장의 대표주자인 우버택시 강경훈 한국지사장의 공유경제 시대 대응 방법, 글로벌 한류열풍을 일으킨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최성준 운영총괄책임자가 말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멀티플라이어 양현석 대표의 경영방침을 언급한다.

파트 3에서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위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준다. 김경일 교수는 조직구성원의 역량은 리더가 조직의 상황을 변화시켜 배가 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음을 다양한 심리학 관점으로 제시한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영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조언 한다. 에린 조 파슨스디자인스쿨 교수는 급변하는 소비자 심리와 글로벌 환경에서의 디자인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12명 멘토가 전하는 이야기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1) 온디맨드(On demand) : 고객의 요구에 따라 즉각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Contents

※ 키워드 : 강연, 리더십, 성공전략, 트렌드

- Part 1 발견 리더는 어떻게 트렌드를 주도하는가
- Part 2 성장 리더는 어떻게 성공의 열쇠를 쥐는가
- Part 3 혁신 리더는 어떻게 뛰어난 전략가가 되는가

내 손끝 작은 구멍

마리옹 아샤르 지음 / 씨드북 / 2016 ▶ 아 863 아53내



박달도서관 배 성 현

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제1형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이 병은 완전히 나을 수는 없는 병이라고 설명했다. 엄마는 울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에서 앞머리를 기른 아르튀르라는 형을 만났다. 재미있는 형이었다. 우리는 병원을 놀이터 삼아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 매일 슬픈 표정만 올리는 어른들이 우리보다 더 환자 같았다.

병원에서 퇴원 하는 날 엄마는 나를 데리고 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빵집아줌마, 사서선생님, 수영코치님, 펜싱코치님….

“이 아이는 당뇨병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119를 불러 주세요.”

그 동안 혼자서도 잘하려고 애썼던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고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다. 내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르튀르 형처럼 앞머리를 기르는 것뿐이었다. 내가 쓰러질까 걱정이 돼서 인지 선생님도 내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찰을 것이다. 나는 누군가 보살피지 않아도 되는 아이로 돌아갈 것이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철과 싸웠다. 철이 생각 없이 내 병과 나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자 아나이스가 한마디를 쏘아 붙였다. 그러자 철은 아나이스에게도 심한 말을 했고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왜 하필 나일까? 나는 하수구에서 인슐린 펌프를 버려버렸다. 결국 나는 다시 병원에 실려 가게 되었다.

병원에서 다시 만난 아르튀르형은 여전히 재미있었다. 형과 놀고 있을 때 아나이스와 아나이스의 할머니가 병문안을 왔다. 할머니께서는 내 얘기를 들으시고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병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르튀르 형은 내 병을 친구들에게 발표하라고 권유했다. 나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끝내 설득 당했다. 퇴원하면 친구들 앞에서 내 병에 대하여 발표하기로 결심했다. 과연 내가 친구들에게 내 병과 내 상태에 대해서 잘 이야기 할 수 있을까?

Information

※ 키워드 : 소아당뇨, 자존심, 성장

- 제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기전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하여 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인슐린 분비가 전혀 되지 않는 당뇨병을 말한다. 주로 소아, 청소년기때 발병한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조금이라도 이루어 지는 제2형 당뇨병과는 구분된다.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어도 체중이 빠지고 수면 도중 일어나 소변을 보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사서추천도서



도서목록

- ✎ 생명의 기억
 - ✎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 ✎ 인생 견문록
 - ✎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 ✎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
-

생명의 기억

에드워드 월슨 지음 / 반니 / 2016 ▶ 470.4 월5719생



석수도서관 김 종 역

모잠비크 고롱고사는 1976년에서 1992년까지 16년 동안 내전을 겪으며 인간뿐만 아니라 온갖 동식물들까지 희생되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황폐해진다. 그렇게 망가진 자연생태계를 2004년에 열정적인 환경운동가와 모잠비크 정부가 회복시키기로 하면서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예전 아름다운 모습을 거의 되찾게 되었다.

이 책은 망가졌던 자연환경과 동식물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아름다운 사진과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진 글로 보여준다.

1장에서는 고롱고사 국립공원의 과거와 현재를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2장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인류가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모잠비크 내전이 고롱고사 국립공원의 동식물에게 끼친 영향을 알려준다.

4장에서는 똥과 피를 매개로 이루어진 생태계에 관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내전 속에서 살아남은 악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6장에서는 내전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코끼리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7장과 8장에서는 거미, 곤충 등 작은 동물들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9장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탐사 및 연구를 일지 형식으로 보여준다.

10장과 11장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과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한다.

저자는 인간의 미래는 자연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도 동식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의 아름다운 사진과 글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길 바란다.

Contents

※ 키워드 : 생태계, 자연, 환경, 모잠비크, 고롱고사

- 모잠비크의 성스러운 산
- 한때 거인이 살았다
- 전쟁과 구원
- 똥과 피
- 6미터 길이의 악어
- 코끼리와 소통하는 사람

- 거미들의 집
- 곤충 문명의 총돌
- 곤충 탐사 일지
- 생존경쟁
- 영원의 보전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이랑주 지음 / 인플루엔셜 / 2016 ▶ 325.745 이2926종



박달도서관

이 해 동

똑같은 물건인데 왜 이 물건은 더 좋아 보이는가?

한 번 보았을 뿐인데 왜 유독 그곳은 기억에 오래 남는가?

이 책은 죽어가는 곳도 살리는, 똑같은 걸 팔아도 10배 매출을 만드는 '미다스의 손' 이랑주가 대기업 마케터부터 창업주들까지 열광했던 자신의 강의 내용 중 핵심만을 담아 왜 그게 좋아 보이는지를 9가지 법칙으로 소개한다.

9가지 법칙은 크게 3가지 키워드로 구분하여 색상(주제 색상의 반복, 조화로워 보이는 배색 법칙, 보색대비 등을 활용한 전략), 빛(빛의 색온도, 빛의 밝기, 빛의 각도, 빛의 거리), 커뮤니케이션(동선 법칙, 신체 조건을 배려한 제품 간의 간격)으로 비주얼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9가지 법칙 중 'Secret 09.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꾸는 가치의 힘'에서는 '교보문고'가 왜 서가를 치우고 5만 년 된 나무 테이블을 놓았나?'를 소개한다. 새롭게 바뀐 교보문고에 가면 가장 먼저 최대 100명이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5만 년 된 카우리 소나무 테이블이 눈에 띈다. 그 밖에도 작은 테이블, 소파, 벤치 등 편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좌석이 300개가 넘는다. 서가 높이는 낮아졌고, 서가 사이의 간격과 통로는 넓어졌다. 교보문고의 목표는 간단했다.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서점'이 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가치'도 함께 산다. 우리가 흔히 말하곤 하는 "살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말을 판매자의 입장에서 바꾸어보면 "내가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철학이 있다." 라는 말과 같다. 그런데 그 철학은 분명히 전달되어야 한다. 전달되지 않은 철학은 아무 소용이 없다. 교보문고는 그 철학을 매장 리뉴얼을 통해 구현해냈다.

이 밖에도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를 예를 들면 보는 순간 사고 싶게 만드는 9가지 법칙을 통해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을 만나볼 수 있다.

Author

※ 키워드 : 마케팅, 브랜딩, 브랜드

■ 이랑주

죽어가는 곳도 살리는 '미다스의 손' 대규모 프랜차이즈부터 전통시장의 작은 가게까지, 그의 컨설팅을 통해 운명을 바꾼 기적의 사례들이 가득하다. 한국 최초의 비주얼 머천다이징 박사로 자신을 '진정으로 좋은 물건을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하는 가치 연출 전문가'라 말한다. 저서로는 <마음을 팝니다>,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 등이 있다.

인생 견문록

김홍신 지음 / 해냄출판사 / 2016 ▶ 814.7 김956인



호계도서관 허지희

《월간에세이》의 ‘김홍신의 살다보면’이라는 코너로 연재한 글을 선별하여 새로 엮어낸 수필집이다. 총 7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저자의 어린 시절의 회상, 어머니에 대한 기억, 일상 속에서 경험하면서 자신의 살아온 세월의 아쉬움과 회한, 기대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누구나 한번 뿐인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아집과 욕심 등으로 괴로움과 두려움이 커질 때 편안한 지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책이다.

“흔들어줘야 가는 구형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건전지만 넣으면 몇 년이고 저절로 가는 신형이 아니어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옛 추억이 제 손목에 있는 듯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흔들어주지 않으면 시계는 멈춥니다. 인생도 그런 듯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흔들어주고 남도 흔들어주고 싶어 이 글을 썼습니다. 함께 흔들리며 인생길 신나게 걸으면 좋겠습니다. 자박자박 한 눈도 팔면서 말입니다.” (p.9)

저자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관찰하며 조바심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더불어 사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한다. 물질 만능주의, 급속히 변모하는 디지털 시대에 나도 모르게 시간의 노예가 되어 어느 새 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김홍신 작가의 메시지다.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그는 이런 글을 적었다.

“사하라 사막을 최초로 횡단한 탐험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바로 신발 속의 모래 한 알이었다. (중략) 지금 나를 따라 다니는 고통을 통해 다른 고통을 잊고 나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p.53)

누구나 배고픔과 목마름을 잊게 할 정도의 ‘신발 속 모래 한 알’ 같은 아픔이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잊고 자신을 다스릴 때, 사막에서 모래 한 알을 털어내고자 신발을 벗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내 안에 갇힌 나를 다시 돌아봄으로써 타인 뿐 아니라 자신의 실수나 결점을 연민과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시 뛰게 하는 책, <인생견문록>이다.

Contents

※ 키워드 : 두려움, 행복, 고통, 인생

- | | |
|-----------------------|------------------|
| ■ 1장 모든 두려움은 자신이 만듭니다 | ■ 2장 인생의 모래알 |
| ■ 3장 스스로 깎고 다듬질하는 이유 | ■ 4장 물처럼 바람처럼 |
| ■ 5장 행복은 아날로그로 찾아옵니다 | ■ 6장 내 마음을 보는 연습 |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쭈린 지음 / 다연 / 2015 ▶ 325.211 쑈29819어



법말도서관

김 보 근

실패는 일시적인 것일 뿐,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좌절이 자아의 형성과 성장, 그리고 자아실현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실패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많은 하버드대 출신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한 이유는 실패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p.88)

우리는 누구나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성공하기를 갈망한다. 저마다의 인생의 길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생을 살다보면 역경에 처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온다. 나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 같은 격한 감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좌절하는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강한 정신이 필요하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정신은 타인이 아닌 잠재적인 나로부터 나온다.

인생에서 아무리 큰 실패를 했더라도 당신은 빈털터리가 아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자아를 실현할 가장 큰 밑천, 바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출신 성공인사들이 평범함을 벗고 남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그들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중요시하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p.162)

이 책에는 하버드대 교수들의 수업 내용과 하버드대 출신들의 다양한 성공담을 담고 있다. 하버드대 출신들이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지, 또 그들을 자아실현의 길로 이끈 ‘하버드 정신’은 무엇인지를 소개한다. 특히 좋은 인성, 자신감, 좌절을 이겨내는 힘, 마인드 컨트롤 등 하버드대 출신들의 공통적 특징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자아를 실현하고 성공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하버드 정신’을 토대로 하버드 엘리트들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독자로 하여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ontents

※ 키워드 : 자아실현, 열정, 성공

- | | |
|------------------------|----------------------------|
| ■ 제1장 성격은 자아실현의 기반 | ■ 제6장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 |
| ■ 제2장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 | ■ 제7장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
| ■ 제3장 좌절 속에서 이뤄지는 변화 | ■ 제8장 행동하라, 바로 지금! |
| ■ 제4장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 ■ 제9장 자제력을 키워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라 |
| ■ 제5장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라 | ■ 제10장 일은 자아를 실현할 최고의 무대다 |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



최은옥 글 오정택 그림 / 주니어김영사 / 2015 ▶ 813.7 최67*



어린이도서관 최 윤 숙

버드나무 마을의 동물들은 오래전에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책을 읽지 않고 각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뱀 할머니는 햇빛 가리개로, 곰 아저씨는 잠을 잘 때 베개로, 개구리들은 책을 세워놓고 높이뛰기 할 때 사용해요. 그리고 주인공 돼지 레옹은 아침마다 똥을 누고 엉덩이를 닦는데 사용해요.

이 마을 동물들은 책을 왜 이렇게 사용하는 걸까요?

레옹은 친구 샤샤를 만나러 광장으로 갔어요. 샤샤는 버드나무 마을 동물들이 존경하는 시장님 댁에서 일하는 고양이예요. 샤샤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자 레옹은 샤샤를 만나러 시장님 댁에 가요. 레옹은 아픈 샤샤 대신 망원경을 갖다 놓으러 시장님 방에 갔다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을 보게 되고 책 사용법에 대한 엄청난 비밀도 알게 되지요. 자신만 똑똑해지길 원하는 시장이 마을 주민들이 책을 읽고 똑똑해질까봐 책을 읽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게 한 거예요.

레옹은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책 사용법 대회”에 참가하여 무대 위로 올라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리둥절하던 주민들이 레옹의 목소리에 빠져들어 웃기도 하고, 훌쩍이기도 하며 책 속에 빠져들었어요.

마을 시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의 집을 도서관으로 개방했어요. 버드나무 마을 주민들은 가장 놀라운 책 사용법은 바로 책을 읽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등으로 인해 점점 책과 멀어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책의 가장 놀라운 사용법은 책읽기라는 것을 레옹과 동물 주민들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고 책 속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Contents

※ 키워드 : 책, 책읽기, 독서

- | | |
|---------------|---------------|
| ■ 레옹이 간다 | ■ 계획이 있어! |
| ■ 책 사용법 대회 | ■ 누가 누가 잘하나? |
| ■ 비밀의 방 | ■ 최고의 책 사용법은? |
| ■ 책을 읽는다고? | ■ 작가의 말 |
| ■ 내 말 좀 들어 봐! | |

2016년

도서 대출 베스트

도서 대출 베스트란?

일반 및 어린이도서를 대상으로 대출빈도가 높은 도서를 분기별로
각 10권씩 선별하여 관련정보를 제공

여 백

도서대출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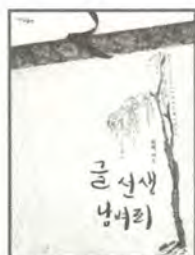
일반도서



베트남 셀프트래블

한혜원, 정승원 지음
상상 [2015]

일반 981.4102 한94부



글 선생 남벼리

장비 지음
마야&마루 [2015]

일반 813.7 장48글



노향

홍성열 지음
글로발문화원 [2012]

일반 338.6 홍54부



여름을 삼킨 소녀

빌레 노이하우스 지음
북로드 [2015]

일반 853 노68여



[허영만] 허허 동의보감

허영만 지음
시루 [2013]

일반 519 허64초

일반도서



생각 수업

박웅현, 진중권 등 지음
알키 [2015]

일반 001.3 생12부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사이토 다카시 지음
걷는나무 [2015]

일반 029 사68부



변경

[이문열 지음]
민음사 [2014]

일반 813.6 이36변



허즈번드 시크릿

리안 모리아티 지음
마시멜로 [2015]

일반 843 모298초



소형 아파트 빌라 투자 앞으로 3년이 기회다

이종길 지음
끌리는책 [2015]

일반 327.87 이75부

도서대출베스트

어린이도서



올보 떼쟁이 못난이
김향이 글 ; 정덕주 그림
비룡소 [2013]

어린이 아 808.9 난82ㄴ 1-12



책과 에너지
백명식 글·그림
내인생의책 [2014]

어린이 아 408 돼78ㄴ 16



루이 파스퇴르
남석기 글 ; 조명원 그림
예림당 [2013]

어린이 아 990.8 인36ㄴ 13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J.M. 바스콘셀로스 글 ; 최수연 그림
동녘 [2007]

어린이 아 879.3 바57ㄴ



석기시대로 떨어진 아이들
햇살과나무꾼 글 ; 이상규 그림
비룡소 [2009]

어린이 아 813.8 햇52ㄴ 1

유아도서



곰곰 씨와 담담이의 꿈
신지윤 글 ; 백승임 그림
여원미디어 [2008]

유아 유 410.8 여66ㄴ 24



배꼽 구멍
하세가와 요시후미 글·그림
비룡소 [2011]

유아 유 808.9 비295ㄴ 176



두둥실 선생님의 우주여행
마우리 쿠나스 글·그림
살림 [2014]

유아 유 443 쿠192ㄴ



무서워앙
로저 하그리브스 글
나비북스 [2010]

유아 유 843.6 하17ㄴ 77



누가 알이 더 많을까
김해원 글 ; 고광삼 그림
여원미디어 [2008]

유아 유 410.8 여66ㄴ 28

도서대출베스트

일반도서



무인양품 디자인

닛케이디자인 지음
미디어샘 [2016]

일반 658.2 닛874ㄱ



독도에 비밀이 있다

토니 문 지음
북랩 [2016]

일반 813.7 문885독



한국을 뒤흔든 금융권력

윤재섭 지음
21세기북스 [2016]

일반 327 윤73ㅎ



성공을 부르는 방 정리

마스다 미츠히로 지음
평단 [2016]

일반 595.4 마57ㄱ



네이티브 생각영어

이수희 지음
도시락밴드 [2015]

일반 740 이56ㄴ

일반도서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오카다 다카시 저
동양북스 [2016]

일반 189.2 오872ㄴ



50살을 위한 50가지

로니 셀러 지음
아이넷북스 [2016]

일반 199.6 셀294ㅅ



스님의 공부법

자현 저
불광출판사 [2016]

일반 373.4 자94ㅅ



하루 10분, 새로운 시작

강상구 지음
원앤원북스 [2016]

일반 325.2112 강52ㅎ



글자전쟁

김진명 지음
새움 [2015]

일반 813.6 김78글 2

도서대출베스트

어린이도서



윽피 키드 2

제프 키니 글·그림
푸른날개 [2008]

어린이 아 843 키198 2



[Why?] 세계 유산

조영선 글 ; 이영호 그림
예림당 [2012]

어린이 아 082 인36 19



착한 엄마 구함

클레르 클레망 글 ; 로빈 그림
주니어김영사 [2008]

어린이 아 808.9 사12 1-3



엠마는 잠이 안 와요

수지 로빈슨 글 ; 세빈 코르디에 그림
비룡소 [2012]

어린이 아 808.9 난82 1-35



[가장 위대한 발명]수

정완상 지음
이치 [2007]

어린이 아 408 정65 1

유아도서



텔레비전이 좋아

카트린돌토 글 ; 조엘부셰 그림
비룡소 [2007]

유아 유 375.1 들885 13



수염 할아버지

마메조 글 ; 우에카야마 그림
지원 [2009]

유아 유 808.9 오76 46



아, 있다

이토 토미 글 ; 마노야사유키 그림
지원 [2009]

유아 유 808.9 오76 39



모자가 좋아

스기야마 가나요 글·그림
지원 [2009]

유아 유 808.9 오76 45



아빠를 처음 부른 날

카트린돌토 글 ; 조엘부셰 그림
비룡소 [2007]

유아 유 375.1 들885 10

도서대출베스트

일반도서



죽적의 시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음
지식노마드 [2015]

일반 323.0911 서66초



미드나잇 선

요 네스뵈 지음
비채 [2016]

일반 859.82 네57미



매스커레이드 이브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현대문학 [2015]

일반 833.6 히12코



수도권 자전거 여행

김병훈 지음
원앤원스타일 [2016]

일반 981.102 김44초



레드 퀸

빅토리아 애비야드 지음
황금가지 [2016]

일반 843 애48레

일반도서



채식주의자

한강 지음
창비 [2007]

일반 813.6 한126채



산산이 부서진 남자

마이클 로보탐 지음
북로드 [2015]

일반 843.6 로45스



반응하지 않는 연습

구사키 료 지음
위즈덤하우스 [2016]

일반 189 구52노



제주 버스 여행

윤성화, 박순애 지음
백도씨 [2013]

일반 981.19902 윤54초



집의 즐거움

와타나베 유코 지음
책읽는수요일 [2016]

일반 590 와882초

도서대출베스트

어린이도서



윽피키드. 6

제프 키니 글 · 그림
푸른날개 [2012]

어린이 아 843 키198 6



뽀뽀한 칭찬 통장

김성범 글 ; 이수영 그림
미래아이 [2009]

어린이 아 808.9 미293미 7



애들아, 노을자

유지은 글 ; 홍선주 그림
좋은책어린이 [2015]

어린이 아 813.8 종67 81



또 형 거 쓰라고?

신채연 글; 김경희 그림
좋은책어린이 [2015]

어린이 아 808.9 종67 85



다시 만난 내 친구

박현정 글 ; 박세영 그림
좋은책어린이 [2015]

어린이 아 808.9 종67 83

유아도서



티키 티키 템보

아릴린 모젤 글; 블래어 렌트 그림
꿈터 [2013]

유아 유 808.9 꿈884 21



개미나라에 간 루카스

존 니콜 글 · 그림
비룡소 [2012]

유아 유 808.9 비295 168



펭귄 365

정혁 프로명탈 글; 조엘 줄리베 그림
보림 [2007]

유아 유 863 프295 8



줄무늬가 생겼어요

데이빗 새논 글 · 그림
비룡소 [2011]

유아 유 808.9 비295 21



눈물바다

서현 글 · 그림
사계절 [2010]

유아 유 808.9 사14 31

도서대출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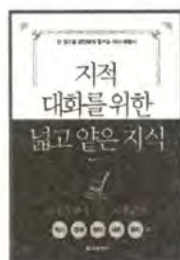
일반도서



교과서 읽기의 힘

고갑주 지음
살림 [2016]

일반 373.4 고12ㄱ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채사장 지음
한빛비즈 [2015]

일반 031 채52ㄷ



사랑도 처방이 되나요

최준서 지음
파란 [2016]

일반 813.7 최76사



공부는 왜 하는가

스즈키 쿄지 지음
일토 [2016]

일반 370.4 스77ㄱ



진짜 제주 100

문철진, 좌영지 지음
미디어샘 [2015]

일반 981.19902 문84ㄷ

일반도서



버리고 비웠더니 행복이 찾아왔다

야마구치 세이코 지음
나라원 [2016]

일반 595.4 야32ㄴ



네버 고 백

리 차일드 지음
오픈하우스 [2014]

일반 843 리78ㄴ



부동산의 보이지 않는 진실

이재범, 김영기 지음
프레너미 [2016]

일반 327.87 이73ㄴ



집이 깨끗해졌어요!

와타나베 폰 지음
이아소 [2015]

일반 595.4 와882ㄷ



작은 집 작은 살림

박현정 지음
위즈덤스타일 [2016]

일반 595.4 박94ㄷ

도서대출베스트

어린이도서



영당이 탐정

트를 글·그림
문학수첩리틀북 [2015]

어린이 아 833.8 트2950



엄마의 생일 파티

김란주 글;이수영 그림
좋은책어린이 [2014]

어린이 아 808.9 종67x 67



우리집은 비밀 놀이터

김명희 글;허현경 그림
푸른숲주니어 [2013]

어린이 A 808.9 푸297x 18



눈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글·그림
창비 [2012]

어린이 A 892.95 흐38L



[책 요정]초초

박혜상 글·그림
사계절 [2014]

어린이 A 808.9 그298x 52

유아도서



멋쟁이 낸시와 예쁜 강아지

제안요너 글;로빈 프레이스글래서 그림
국민서관 [2008]

유아 유 808.9 국38x 89



마녀 위니의 생일 파티

밸러리 토머스 글;코키 폴 그림
비룡소 [2012]

유아 유 808.9 비295x 192



머리가 좋아지는 그림책

우리누리 글;윤정주 그림
파란하늘 [2008]

유아 유 808.9 하197x 6



수의사가 될래요

레니 브라운 글;티제이 팀 그림
예림아이 [2012]

유아 유 321.55 바480 2



지하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글·그림
북뱅크 [2011]

유아 유 833.8 이65지

국민 독서실태

국민 독서실태

이번 제11집 독서정보자료집에서는 안양시민 여러분의 독서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1월 22일에 보도한
‘국민 독서실태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여 백

1. 독서율

연간 독서율(종이책 기준)은 성인 65.3%로 '13년 보다 6.1% 감소, 학생은 94.9%로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14년 10월~15년 9월) 동안 종이책(교과서·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를 제외한 일반도서)을 '한 권 이상 읽었다'는 비율은 65.3%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에 조사한 71.4%에 비해 성인 독서율이 6.1%포인트 하락하였으나 2010년, 2011년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성인 독서율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 36.9%, 중졸 이하 학력층 30.8%, 저소득층에서 특히 낮게 나타남.

학생의 연간 독서율은 94.9%(초 99.4%, 중 95.0%, 고 91.3%)로, 지난 2013년 96.0%와 비슷한 수준이며, 학교급별로도 지난 2013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연간 종이책 독서율 (성인 · 학생)

(단위: %)



2. 독서량

연간 독서량은 성인 9.1권으로 '13년 대비 9.2권과 비슷, 학생은 29.8권으로 '13년 32.3권 대비 감소

종이책 비독서자를 포함한 만 19세 이상 성인의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동안 종이책 독서량은 평균 9.1권으로 지난 2013년 9.2권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독서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간 독서량은 평균 14.0권으로 지난 2013년 12.9권보다 증가함. 이러한 결과는 전체 독서인구는 줄었지만 독서자층을 중심으로 독서량은 2년 전 대비 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학생 전체의 연간 독서량은 29.8권으로 지난 2013년 32.3권에 비해 감소함. 초등학생의 독서량은 지난 2013년 대비 5.2권 증가한 반면 중고등학생은 평균 1~2권 감소함.

연간 종이책 독서량 (성인 · 학생)

(단위: 권)



3. 독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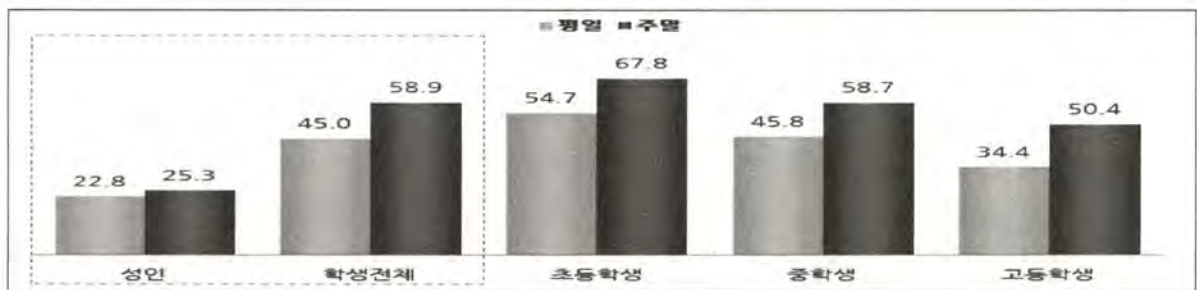
평일/주말 독서시간은 성인·학생 모두 2년전과 비슷한 수준

성인의 독서시간(종이책+전자책)은 평일 22.8분, 주말 25.3분으로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학생의 독서시간은 평일 45.0분, 주말 58.9분으로 성인보다 약 2배 정도 많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일/주말 독서시간은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성인의 독서시간은 독서량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학생의 경우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2011년 2학기) 이후 주말 독서시간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번 조사의 경우 지난 2013년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독서시간 (성인 · 학생)

(단위 : 분)



4. 독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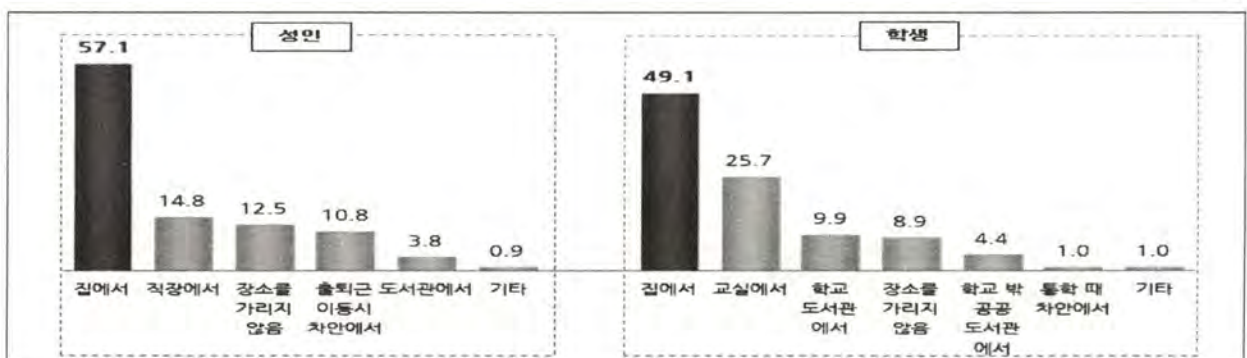
성인은 주로 집에서 독서하며, 학생은 집과 학교교실, 도서관에서 독서

독서자들이 평소 책을 읽는 주된 장소는 성인과 학생 모두 '집'(성인 57.1%, 학생 49.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인은 '직장'(14.8%), 학생은 '교실'(25.7%)임. 이어서 성인의 경우 '출퇴근, 이동시 차안'(10.8%), 학생은 '학교 도서관'(9.9%)임.

독서 장소의 순위는 성인과 학생 모두 지난 2013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학생의 경우 '학교 도서관' 비중이 지난 2013년에 비해 크게 감소(2013년 18.7%→2015년 9.9%)한 점이 주목됨.

독서 장소 (성인 · 학생)

(단위 : %)



5. 독서 장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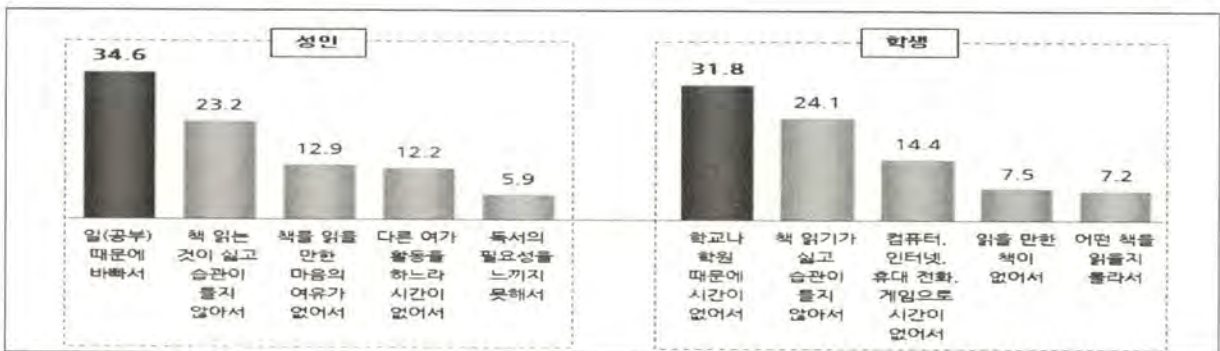
성인과 학생 모두 '시간 부족' 과 '독서 습관 미형성' 이 주된 독서 장애 요인

평소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성인과 학생 모두 '(일이나 학교·학원 때문에)시간이 없어서'(성인 34.6%, 학생 31.8%)이며, 두 번째는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성인 23.2%, 학생 24.1%)임. 이어서 성인의 경우 '책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12.9%), '다른 여가 활동으로 시간이 없어서'(12.2%), 학생은 컴퓨터·인터넷·휴대전화·게임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학생 14.4%)의 순서로 나타남.

성인의 경우 '일(공부) 때문에 바빠서'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저학력 층에서 높게 나타남. 학생의 경우 학교급별로 큰 차이 없이 주된 독서 장애 요인으로 '시간 부족'과 '독서 습관 미형성',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의 정보/오락 매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독서 장애 요인 (성인 · 학생)

(단위 : %)



6. 공공도서관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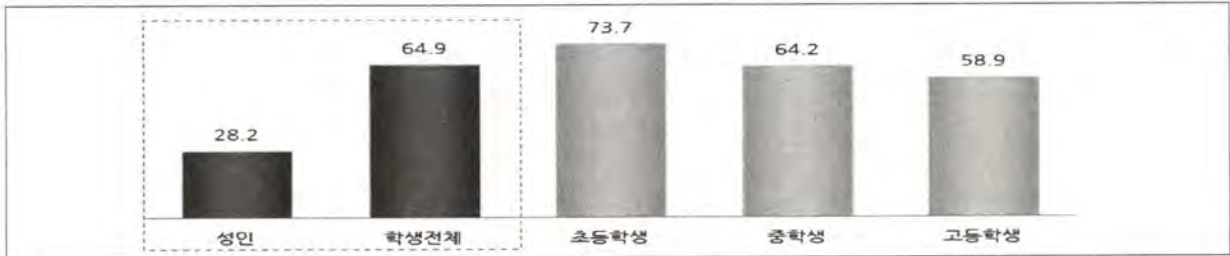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성인 28.2%, 학생 64.9%로 성인은 2년 전 대비 소폭 하락, 학생은 소폭 상승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성인 28.2%, 학생 64.9%로 성인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지난 2013년 30.3%에 비해 소폭 하락한 반면, 학생은 2013년 61.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반면(20대 50.2%, 60세 이상 10.1%), 독서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성인, 학생 모두 연간 독서량이 많을수록 공공도서관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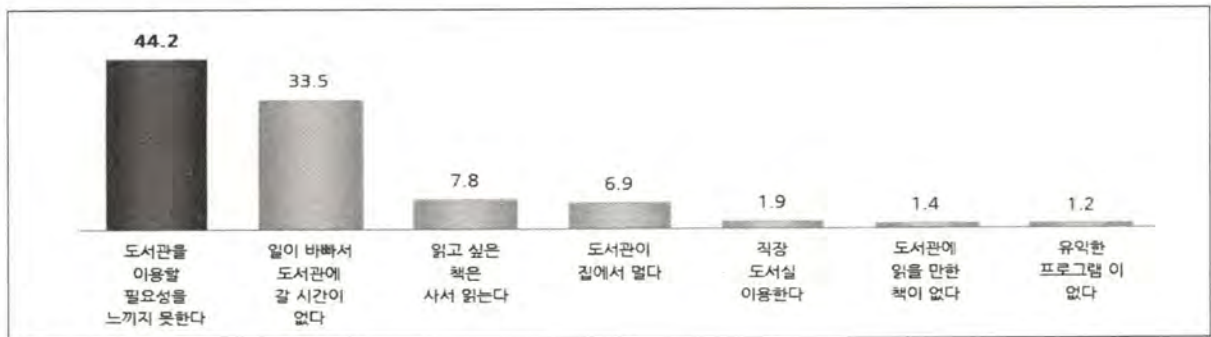
공공도서관 이용률 (성인 · 학생)

(단위: %)



독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성인)

(단위: %)



7. 학교도서관 이용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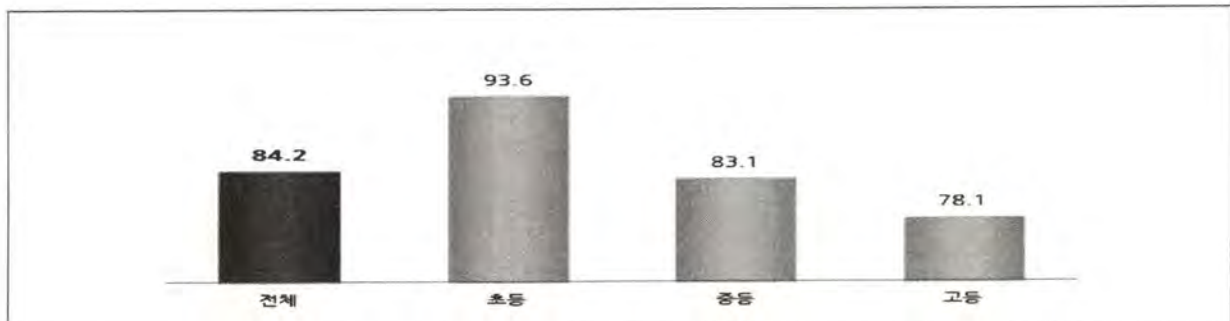
학교도서관 이용률은 84.2%로 2년 전과 비슷하며, 학생 독서량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줌

지난 1년간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84.2%로,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내려갈수록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학교도서관 이용률은 지난 2011년 이래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2011년 81.6%, 2013년 86.0%), 연간 독서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학교도서관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도서관 이용률 (학생)

(단위: %)



8. 도서 선호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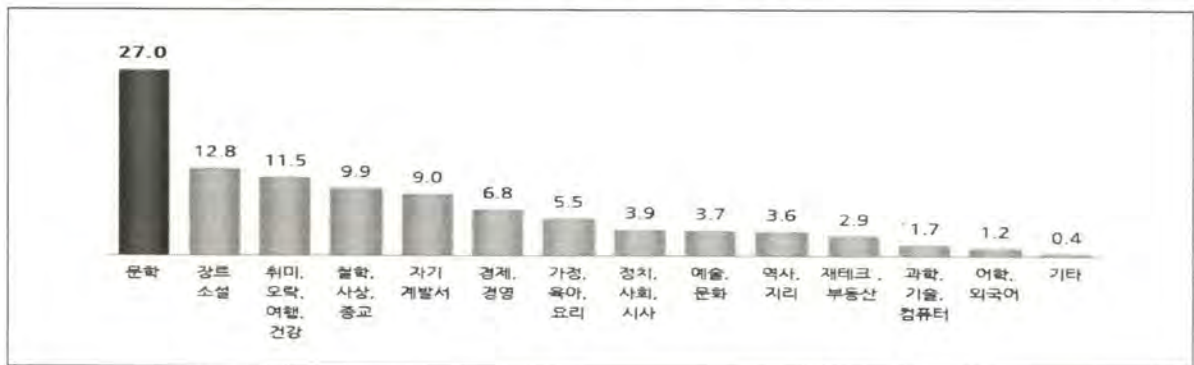
성인·학생 모두 소설 등 '문학도서' 선호도가 가장 높고 전자책은 '장르소설' 선호도가 훨씬 높음

성인의 종이책 선호 분야는 '시, 일반소설, 수필 등 문학도서'(27.0%), '추리·로맨스·판타지·무협·공상과학 등 장르소설'(12.8%), '취미, 오락, 여행, 건강'(11.5%), '철학, 사상, 종교'(9.9%) 순인 반면, 전자책 선호 분야는 '장르소설'(27.8%)과 '시, 일반소설, 수필 등 문학도서'(18.4%)가 가장 많아 종이책에 비해 '장르소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 연령, 학력별로도 큰 차이 없이 종이책은 '문학도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반면, 전자책은 남성의 경우 '장르소설'(28.6%), 여성의 경우 '장르소설'(26.8%)과 '문학도서'(22.7%)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연간 도서 선호 분야 : 종이책 (성인)

(단위 : %)



9. 종이책 구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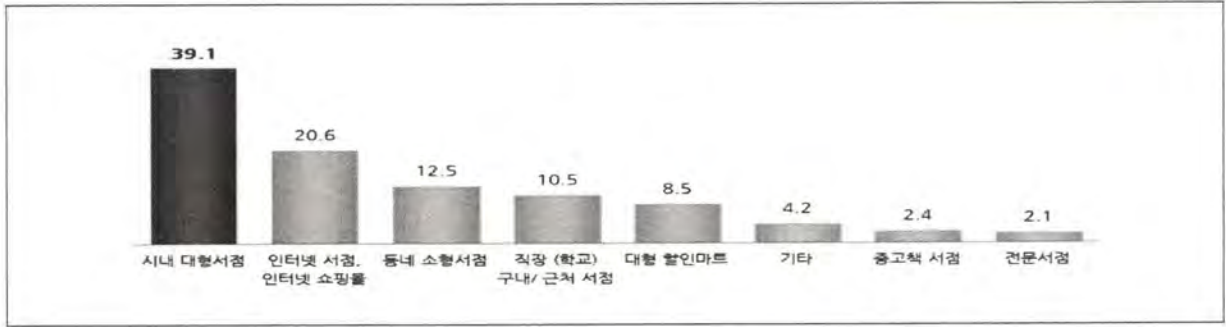
성인과 학생 모두 ' 시내 대형서점', '인터넷서점', '동네서점' 순으로 이용률이 높음

평소에 종이책을 주로 구입하는 곳(2순위까지 복수응답)은 성인의 경우 '시내 대형서점'(39.1%)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인터넷서점·쇼핑몰'(20.6%), '동네 대형서점'(12.5%), '직장(학교) 근처 서점'(10.5%)의 순임. 학생의 경우 '시내 대형서점'(28.4%)과 '인터넷서점·쇼핑몰'(27.0%)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임.

최근 들어 설립이 증가 추세인 '중고책 서점'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은 성인 2.4%, 학생 3.4%로 2년 전보다 각각 0.9% 포인트, 1.4%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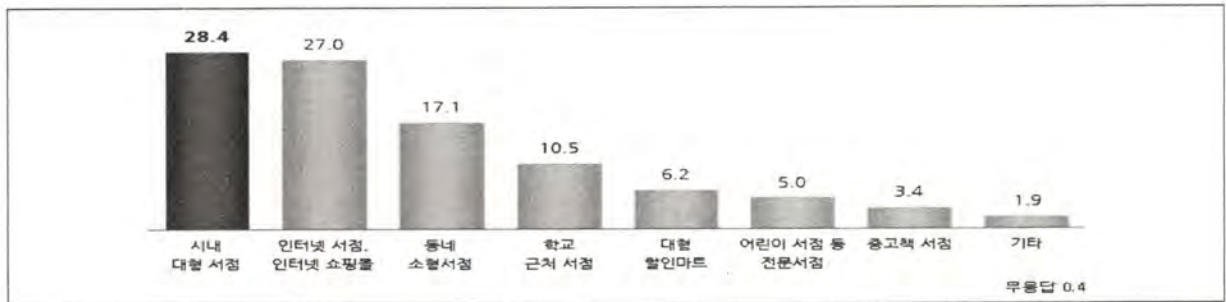
도서 구입처 (성인)

(단위 : %)



도서 구입처(학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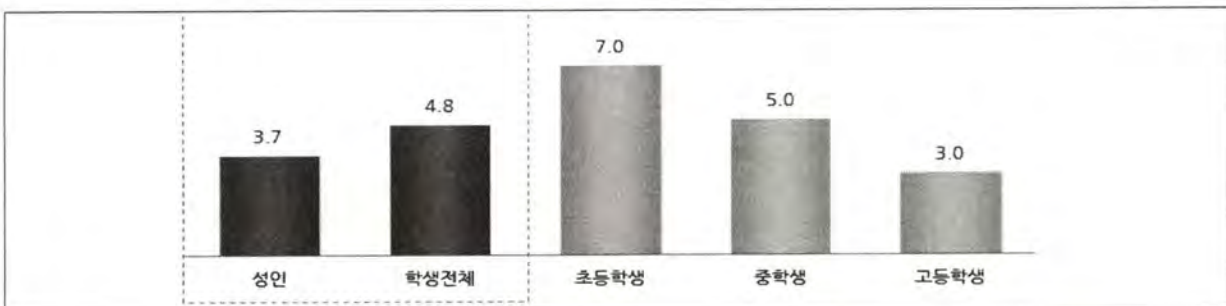
10. 도서 구입량

비구입자를 포함한 성인의 연간 종이책 구입량은 3.7권, 학생 본인이 구입한 연간 도서 구입량은 4.8권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14년 10월~15년 9월) 동안 종이책을 ‘단 한 권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성인들의 연간 도서 구입량은 평균 3.7권이며, 학생의 경우 본인 스스로 구입한 도서 구입량은 평균 4.8권으로 학교급별로는 독서량이 많은 초등학생이 도서 구입량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도서 구입량 : 종이책 (성인 · 학생)

(단위 :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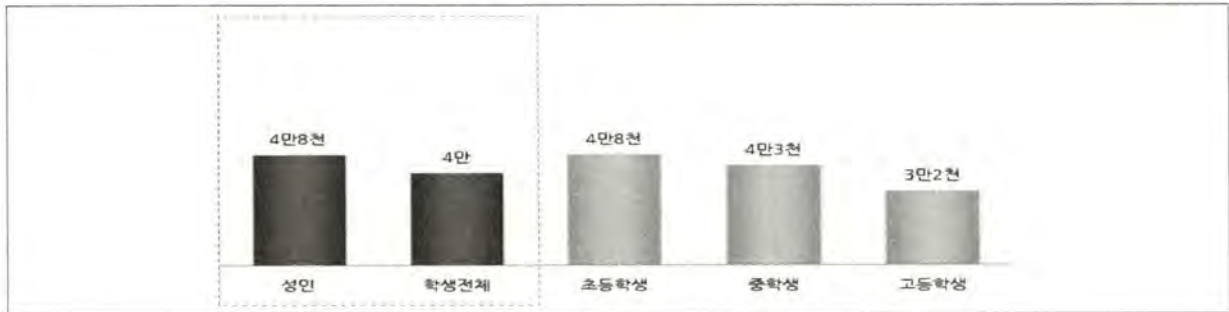
11. 도서 구입비

비구입자를 포함한 성인의 연간 도서 구입비는 4만8천원, 학생 본인이 구입한 연간 도서 구입비는 4만원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14년 10월~15년 9월) 동안 종이책을 ‘단 한 권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성인들의 연간 도서 구입비는 평균 4만8천원이며, 학생들의 경우 본인 스스로 구입한 도서 구입비는 평균 4만원으로 학교급별로는 특히 고등학생의 도서 구입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도서 구입비 : 종이책 (성인 · 학생)

(단위 : 원)



12. 직장인의 독서환경 [성인]

‘직장에 도서실, 독서활동, 독서 프로그램 등이 전혀 없다’ 는 직장인이 89.3%로 직장의 독서환경은 미흡함

직장인 응답자(3,273명)를 대상으로 직장의 독서환경을 분석한 결과(복수응답), 응답자의 89.3%가 ‘직장에 도서실, 독서활동, 독서 프로그램 등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직장 내에 도서실이 있거나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4.6%), ‘직장의 권장도서 목록이 있다’(4.0%), ‘회사 전체에서 책 읽기를 강조하는 편이다’(2.9%), ‘원하는 책을 직장에서 구입해 준다’(1.5%), ‘저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1.4%), ‘직장 내에 독서 모임이 있다’(1.4%)는 응답은 각각 5% 미만으로 직장의 독서환경 조성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직장의 독서환경과 직장인의 독서실태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종이책 독서 기준), ‘직장에 도서실, 독서활동, 독서 프로그램 등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의 연간 독서율은 64.5%, 연평균 독서량은 8.7권인 반면, ‘직장에 도서실, 독서활동, 독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독서율이 85.3%, 연평균 독서량이 12.1권으로 증가함. 이는 직장의 독서환경이 직장인의 독서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줌.

13. 학교의 아침독서 시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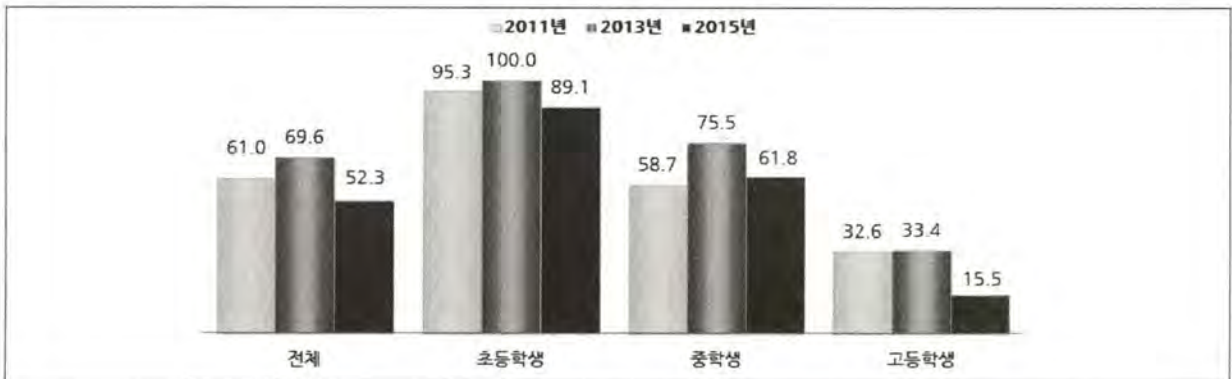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학교 아침독서 시행률은 '9시 등교제' 영향으로 2년 전 대비 17.3% 감소

학교에 '아침독서 시간이 있다'는 응답은 52.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과거 조사 결과('10년 55.4%, '11년 61.0%, '13년 69.6%)와 달리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역 교육청 단위로 시작된 '9시 등교제'의 영향으로 해석됨. '9시 이전 등교' 학교 학생의 아침독서 실시율은 59.7%로 '9시 등교' 학교 학생인 경우(38.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과거 조사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9.1%, 중 61.8%, 고 15.5%), 연간 독서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학교에 '아침독서 시간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음. 아침독서 시행률이 낮은 학교급일수록 2년 전보다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고 -17.9%p, 중 -13.7%p, 초 -10.9%p).

아침독서 시행률의 변화 추이 (학생)

(단위: %)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0122]문제부보 도자료-2015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발표(담당자: 하재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서 명언 모음

독서 명언 모음

이번 제11집 독서정보자료집에서는 안양시민 여러분의 수준 높은 독서생활을 위하여 독서에 관한 명언을 전함으로써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여 백

동양의 독서명언

- 맹자(孟子) ○ 책을 읽으면 옛 현인과의 벗이 될 수 있다.
- 박지원 ○ 독서를 하면 그 혜택이 천하에 미치고 그 공덕이 만세에 드리운다.
- 이이 ○ 반드시 한 가지 책을 익히 읽어서 그 안의 참된 이치와 뜻을 모두 깨달아 모두 통달하고 의심이 없게 된 연후에야, 비로소 다른 책을 읽을 일이다. 여러 가지 책을 탐내어 이것저것을 얻으려고 분주히 섭렵해서는 안 된다.
- 이황 ○ 책을 읽음에 있어 어찌 장소를 가릴 것이라.
- 정약용 ○ 오직 독서만이 위로는 옛 성현을 좇아 함께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길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다.
- 허균 ○ 보지 못했던 책을 읽을 때에는 마치 좋은 친구를 얻은 것 같고, 이미 읽은 책을 볼 때에는 마치 옛친구를 만난 것 같다.

서양의 독서명언

Benjamin Franklin
(벤자민 프랭클린)

- 독서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만든다.
사색은 사려깊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논술은 확실한 사람을 만든다.

John Locke (로크)

- 독서는 다만 지식의 재료를 줄 뿐이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Mark Twain
(마크 트웨인)

-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Napoléon Bonaparte
(나폴레옹)

- 독서를 통한 폭넓은 지식과 상상력이 나의 힘이었다.

Winston Churchill
(윈스턴 처칠)

-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는 책을 읽어라.
쓸데없는 생각은 비교적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분주한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가한 시간이 생길 때마다 유익한 책을 읽어
마음의 양식을 쌓아두어야 한다.



안양시립도서관
www.anyanglib.or.kr